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米國不況退治策

第二의產業復興運動

一

루스벨트大統領은 十四日議會에 特別敎書를 보내여 米國의 不況退治策으로 各種公共事業의 實施及 信用擴張의 必要를 强調하고 右에對한 議會의支持를 要請하엿다는데 루大統領이 不況退治를 爲하야 動員하려는 總資金은 實로 七十一億一千二百萬弗이라는 彪大한數字로서 昨日市勢인 對米爲替二十九弗을 標準으로 日貨로換算한다면 二百四十五億二千四百十三萬七千九百二十七圓이라는 宏壯한 金額에 達하게된다。不況打開의 社會政策的 施設을 하기爲하야 이와가티 彪大한資金動員을 計畫한다는것은 오직 아메리카와가튼 『黃金國』에서만 可能한일이지마는 이와가튼大規模의 計畫은 米國에잇서서도 非常한 計畫으로 루大統領이 就任直後即 一九三三年에 實施한 NRA運動資金에 다음가는 彪大事業이니만치 第二 NRA運動이라고도 부를수잇는 大事業인同時에 이計畫發表에 鑑하야 現在米國經濟界가 얼마나 不景氣한가를 推測할수잇는가한다。

二

事實 最近의 米國景氣는 날로惡化의途程을 밟어왓다。昨年九月을 境界로하야 『붐』景氣의 破綻을보이게된 米國 經濟界는 各方面의 惡材料頻出로 復興氣色은 조금도보이지안코 各種產業株가 一齊히暴落을示하야 去三月末에는 스틸株도 四十弗臺를 割하는 暴落을 演出하엿다。農村景氣도 AAA以下 一聯의 農業政策이 自然的條件에基한 減產의 僥倖을바더 農產物價를 昂騰케하야 農村收益을 一時增大케하엿스나 去年의 天候順調로米棉、小麥等 主要農產物의 未曾有的大豊作에伴하야 農產物價가 大暴落을 告한結果、農業恐慌이 再起되게되엿다。따라서 米國財界의 基本的바로메-터로 볼수 잇는 生產指數는 昨年五月에 一一八을示하든 聯邦準備局生產指數가 同九月에 一一一로低落되고 同十二月에는 八二에 暴落되엿다。此에伴한 一般產業界不振은 勞働者의 大量解雇를 齎來하야 昨年七月 六百九萬三千의 最少記錄을 示하든失業群이 今年一月에는 一千三十四萬二千名으로 大激增을 보게되엿고 勞賃指數도 昨年五月에 一〇五·二를 示하든것이 同年末에는 八〇·九로 轉落되어 勞働者는 二重的困境에 陷入하게되엿스니만치 社會的不安은 日往尤甚함을 免치못하게되엿다。

三

이러한 現狀에處하야 華盛頓爲政當局은 무슨 方法으로든지 直面한 不況退治政策을 세우지 안흘수업게되엿다。그리고 그結果로 出現한것이 이번 七十一億弗資金動員의 루大統領의 不況退治策이다。루즈벨트自身의 말을 引用하면 『政府는 過去數個月間 經濟界自體가 自力으로써 後退한 景氣를 回復할수잇슬까 엿보아왓든바 事態는 政府가 率先出動치안흘수업게되엿스므로 此際에 不況退治에 率先進出할 必要를 느끼게 되엿다。最近各國이 民主主義原則으로부터 獨裁主義로 移行하는것은 此等諸國은 議會의 指導者를가지지못하고 따라서 失業問題、財界不安、其他 諸難問을 打開할수업는 政府의無力에 國民이 失望한까닭이다』라고 하엿다。이것은 現下米國의 深刻한 不況을 그대로 放任하면 社會的重大變動이 惹起될지도모른다는 社會不安을 如實히表示한 말인同時에 民主的인 아메리카는 不況의代價으로 米國傳統의自由를 犧牲치안코도 이不況退治策에 依하야 景氣를 回復할수잇다는것을 强調한말이다。

四

그러나 以上目的의 彪大資金은 特別敎書의 形式으로 議會方面의 支持援助를 要請한데不過한것이오 議會를 通過한것은 아니다。그리고 議會方面에는 如斯한彪大한 資金支出에 念慮하는 反對하는者도 相當히 만흠으로 그前途는 아직未知數이며 더욱히 NRA를中心으로한 루즈벨트大統領의 뉴딜政策으로因하야 國債가 非常히 激增되여 一部에는 百五十餘億이라는 天文學的彪大資金을投한 產業復興運動이 어느사이에 終焉을告하고 말게되엿다는 다시말하면 投資에對한 收益이 너무도 微微하다 보게되엿다는 批判도 잇다。그러나 米國財界가 深刻한 不況에 直面한것이 事實이오 이不況打開를 豫算의 運命에만 맛길수업는 것이 事實이오 또 彪大한 資金을 投하지안코는 不況打開의 特別한 方法이 업는것이 事實이라면 彪大한 이計畫이 積極的 效果를 期待할수업슴을 認定하면서도 議會方面에서도 結局 이計畫에 贊成하지나안을까 觀測된다。

上院海軍委員會 新海軍擴張案採擇

四萬五千噸級主力艦三隻建造包含

建艦競爭에 米國積極的態度를明示

【華盛頓十五日發同盟】上院海軍委員會는 十六日午後마침내 總額十一億五千六百萬弗의 新海軍擴張案을 採擇한後 即時上院本會議에廻附하엿다 右는 앞서下院을通過한 原案十一億二千百萬弗에對하야 다시三千五百萬弗을 追加修正한것이다

(寫眞 외氏)

【華盛頓十五日發同盟】上院海軍委員會는 十五日 總額十一億五千六百萬弗의 新海軍擴張案을採擇、上院本會議에 廻附하엿는바 외委員長의 發表에 依하면 同委員會의 修正案은 米國海軍의 要求를 容認하야 四萬五千噸級 大主力艦三隻 二萬噸級航空母艦 二隻의 建造를包含하고잇서 世界建艦競爭時代에對備하야 米國政府의積極的態度를明瞭히하엿다

트러스트取締 新權限要求 米大統領敎書送附?

【華盛頓十五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十四日景氣回復을爲하야 總額七十億弗을突破하는 資金放出의權限을 議會에求하엿든바 다시十五日의 定例新聞記者團과의會見에서 近近 議會에 特別敎書를보내여 積極的政策을 遂行하려고 新權限을 要求할意向을 明白히하엿다 余는 近近다시 特別敎書를議會에보내여 트러스트取締强化 其他의權限을 求하려고한다

滿洲國의要求를 佛全面的承認

山海關問題圓滿解決

【新京六日發同盟】山海關에잇서서의 佛蘭西軍의 不法越境問題에關하야 十五日 滿洲國側으로부터 嚴重抗議를 佛蘭西側에提出하엿든바 佛蘭西側도 드디어 昨夕에至하야 駐屯軍司令官 쟈코니大佐가 天津으로부터 山海에赴하야 同地滿洲國國境警察隊를 訪問하야 滿洲國의 要求를全面的으로 承認하얏스므로 同問題도 이에圓滿解決을告하엿다

日本은宣傳不足 佐藤少將歸朝談

【神戶電話同盟】上海、香港의外人街를 潛行하야 情報蒐集의任務를띄고 活躍하든 陸軍少將佐藤安之助氏는 神戶入港의 鹿島丸으로 歸來 船中에서 左와 如히말하엿다

이번에야 말로 절실히 感한것은 日本의 宣傳이 拙劣하다는것을 깨닷게되엿다 그리고 蔣一派의 데마宣傳은 巧妙를 極한中 中央通信外에로이털、타스의 通信을 利用하야 歐米에放送하는 以外에 日本空軍에게 爆擊될 경우에는 即時『病院良民의損害多數』라 宣傳하고잇다 이에反하야 日本側은 이것을保護하는것처럼 皇軍이『大爆擊을敢行하엿다』하고 뉴-스를보내온다 이래서야 第三者가 支那側에 同情하게될것은 當然한일이다 또日本側의뉴-스는『軍當局發表』라든가『大本營發表』라는等 千篇一律的인데反하야 蔣一派는 蔣의談話라든가 宋美齡의 絶叫라든가하야 여러가지로 變化잇게하고잇다 이때문에 香港方面의 外國人新聞記者까지 日本은結…

聖上陛下御親臨下 自治制記念式擧行

【東京電話同盟】我國立憲制度의 根幹인 自治制의 發布를보지 玆에滿五十星霜『自治制五十周年記念式』은 드디어 十七日午前十時부터 新綠이薰動하는 宮城二重橋前廣場에서 擧行하기로된바 此日 聖上陛下의 御親臨을 仰하와 優渥한 勅語를 賜하옵시고 秩父、高松、賀陽、久邇、梨本、北白川、竹田各宮殿下께옵서도 台臨하시옵신다고 承聞되는데 賞勳局總裁四十餘名 內務省關係三百五十名의 個人被表彰者는 모두 多年 地方에 在하야 自治制의運用에 남모르는 苦心을 하야온 사람들이므로 그感激은 推察하고도 남음이잇서 自治史上 曠古의 盛儀이다 그런데 이式典의 模樣은 勅語를 賜하옵신際를 除하고 終始 라디오로 全國에 放送될터인바 그에 繼續하야 午後零時半부터 日比谷公園廣場에서 記念會主催의 祝賀會가 開催되고 午後三時부터 明治神宮奉告祭 午後五時부터는 靖國神社奉告祭 그리고 午後六時二十五分부터 末次內相 小橋記念會長의 記念放送이잇서 帝都는 終日 自治의 깁붐에 뒤끌을것이다

第四回 產業視察團員募集

本社가本社四大綱領의 하나인產業發展의標語 미테年年產業視察團을

募集、派遣하야 多大한成果를 어든것은 讀者諸氏의 周知하는 事實이어니와 今年에는 이年中行事의 視察地로滿洲及北支를 擇하얏다。滿洲及北支는 말할것도업시 新興產業地帶로 彼我의物貨를 有無相通할處地에잇스며 彼處의大規模產業을 此處에 龜鑑으로 삼을것이만타。曠漠한滿洲平野에서 產出하는各種農產物、北支에서 發掘되는石炭、鐵等諸鑛產物、이것들을 精製、加工하야食料、軍需品化하는 製造及重工業、모두 吾人의參考안될이업다。特히 滿洲及北支는 朝鮮과 隣接한 地帶로 歷史上、文化上深大한關係에잇고 今後도一層近接할形勢에잇다。本社가 滿洲及北支視察團을 募集함도 이所以이다。諸氏의 發奮參加를바라는바이다。

團員 二十五人

期間 五月六日京城出發同二十二日歸京(十七日十六泊)

視察地 圖們、牧丹江、哈爾濱、新京、吉林、奉天、撫順、北京、張家口、天津

旅費 二百八十圓(汽車二等、夜間寢臺、旅館一流)

資格 實業家(年齡二十五歲以上五十歲以下)

起點 京城으로함

參加手續 參加手續은 四月末日까지 金百圓을添附하야 本社事業部로 申請하되 旅費全額은 必히出發前日까지 完納할事(但先納申請金은 事由如何를 不問하고返還치안코 人員이滿員될時는 申請期限前이라도 締切함)

主催 朝鮮日報社

血戰實로八日 悽壯台兒莊攻落戰

彈雨瀑注下敵前二百米三晝夜

戰傷勇士第一着談

【臨莊十六日發同盟特派員發】血風衝天하는 台兒莊攻略은 津浦線戰鬪開始以來의 大激戰으로 同城占領까지에 實로 八日間의 激烈한 戰鬪를 演하는 形便이엇는바 同城東北角으로 向하야 名譽의 第一着을 敢行한 安永部隊의 戰傷將校森永本吉中尉, 部隊의 田房夫少尉, 竪見武騰准尉는 各히 野戰病院에서 元氣잇게말하엿다 悲壯을 極한 肉彈突擊의 武勇談은 如左하다

敵前二百米의 地點에서 三晝夜間을 버틔고잇섯다 飛來하는 砲彈과 敵의 必死의 夜襲에 堪耐하면서 버티고잇섯다 安永部隊가 合兒莊東北角突擊의 命을 受한것은 去三月二十七日의 早曉이엇다 午前一時工兵隊가 압흘 터이라 敵前百米까지 接近하자 ○後方으로부터도 擲彈射擊이 開始되엿다 突擊部隊는 伊藤大尉山

本大尉다음에 森永中尉도 安永部隊主力 이러케 열적이보지못하든 三隊의 配置이엇는바 「이번의 突擊에는 負傷하야도 擔架兵을 불러서는안된다 戰友가 너머저도 求치말고 前進하라」라는 全滅覺悟의 悲壯한 訓示를 受한 將兵은 極度의 緊張裡에 彈雨를 마즈며 기다리기 暫時 午前八時가까이 城壁파함께 토끼와가티 城壁目標로 뛰어나갓다 어느듯廿七師、百卅一師、城外左便의一師、二師、卅師 合計五個師가벌는 敵軍은 一齊히 激烈한 銃砲火를 퍼부어왓다 城壁에 沿하야 幅三十米의 水堀에 텀벙 뛰어들어 몸까지 빠지어 막突進하야 我頭上을 지나가는 機關銃彈은 君쓰는 旋風과갓다 青空도 검게 퍼붓는 手榴彈雨다 伊藤大尉(金澤縣)濠內에 뛰어들어 五人을

베어너머트린때 十字砲火를 만나戰死하고 山本大尉 金田少尉(島取縣)도 二、三人 베어너머트리고 頭部를 射貫되고 戰傷하야 森永中尉、宮前嘉一 少尉(島取縣)도울가운데서 『痛恨』의말을 남기고 壯烈한 戰死를 하엿다 暫時肉彈戰이 繼續되어 비와가티 퍼붓는 手榴彈中에 드디어 第一着하엿다

食糧奪取爲하야 敗殘共產軍出沒

【北京十六日發同盟】北京臨時政府警防司令部에 達한情報에依하면 朱德以下共產軍頭目은 皇軍의威力이不及하는 諸山中에潛入하야 제맘대로 傷縣政府僞道縣政府等을 세우고 그들스스로 省長或은 縣長이되여 附近住民을 强制的으로 共產軍에 加入케하며 一方食糧奪取를 일삼고

匪團續續投降 我討匪에協力

【北京十六日發同盟】河北省方面의 敗殘兵匪賊은 勇猛果敢한我의 攻擊에 不堪하야 續續 歸順하게되엿는데 앞서 李英의一萬二千名을 筆頭로 大名에서는 二百二十名 濮鹿縣에서는 一千百名 內邱縣에서는李拜玉의 二千名等이 接觸하야歸順하고잇는데 此等은 皇協軍이라稱하야 我軍의 匪賊討伐에合流協力하야 戰死傷者多數를 내는等 奮戰努力하고잇다

捕虜團은心服

【北京十六日發同盟】敗戰에 敗戰을 거듭하고잇서 皇軍의 威武와 國民黨의 惡政에 멀미가 나서 投降하야 오는 支那兵은 逐日益益 增加하고잇는바 ○○部隊에서는 此等捕虜兵收容에苦慮하야 北京郊外의 舊支那兵營에 京漢線、津浦線方面의 捕虜五百名을 收容하고 指導에 當하고잇는데 그中에는 萬福麟의 旅團參謀張金大佐도 석겨잇는바 傷病兵에는 適當한 加療를하야 全治시키는 一方 日本語、軍事敎練等을 敎授하는 한便道路工事를 식히고잇는데 道路工事에 從事할 者에게는 一日賃金五十五錢을 주고 그中 三十錢은强制貯金시키어 四個月後에 歸鄕旅費 又는 生業資金의 一部에 充當시키어 이미第一回五百名은 卒業하고 歸鄕한者도잇고 第二回는 目下收容中으로 四個月이 지나면 軍事敎練도 日本語로하게될것이다 더욱이 업는 일이나 못할것이아니다 同隊에서 使用하야 『捕虜討伐軍』도 活躍시키어 鄕里에 도라가도 집도 生業도업는 捕虜는四個月經過後도 繼續하야 使用하기를 懇願하므로 使用하기로되엿다 此等捕虜團의 頭目이라할 張金大佐는 今朝同所를 視察한記者團에게 如左히말하엿다

우리는 國民黨의 煽動으로나 어가고잇섯다 우리는 이에 從來 全然그릇된 方向으로 思想을 곳치어 過去를淸算하고 크게 日支親善에 努力할것이라고 맛고잇다

開灤罷業人夫 最後通牒發送

【天津十六日發同盟】礦務局側이 新代表의 要求를 拒絶하얏슴에 …

廣東方面에서繼續 軍用鐵道等을爆擊

敵의新銳英機도無色

【上海十六日發同盟】艦隊報道部는 十六日午前十一時發表=昨十五日 我海軍航空隊는 繼續하야 廣東方面에서 粵漢鐵道를 攻擊 軍用鐵道鐵橋等을 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上海十六日發同盟】去十三日廣東方面에잇서서의 我海軍航空隊는 英國製新銳機의 性能을 試驗하는 絶好의機會를 엇게한것이오 또 그戰果로보아 我航空機의 機材及 技倆이 모두 敵機보다 나흔것이 證明되어 世界에 새로운 脅威를 주엇다고 보고잇다 그런데 右戰鬪에際하야 敵이受한 物質、精神兩方面의 打擊은 甚大한바가잇서 十五機가擊墜된外 다시 戰死 及 重輕傷을 受하고 逃走한者이다

負傷者를내엿슴에 十六日으로부터의 來電에依하야 判明되엿다 即 廣東市長 吳鐵城은 多數의 高級職員을 다리고 十五日 某病院에 空中戰의 協外 飛行士數名을 慰問하엿다 右空軍隊長은 十三日의 空中戰에 參加하야 日本機에 쫓기면서 겨우 墜落을 免하얏스나

英佛獨伊波五個國 協定可能性協議?

하바스通信의 英佛會談豫想報道

【倫敦十五日發同盟】英佛協定締結을 비롯하야 英佛會談 佛伊交涉 여러개英佛伊三國間에 接近하야 多角的國交調整이 開始되려는 氣運이 노파지고잇는바 十五日 하바스通信社倫敦支局의 報道에依하면 四月下旬 開催되는 英佛會談에 잇서서 兩國首腦者間에 英佛伊三國外에 獨逸、波蘭을 加한 五個國協定締結의 可能性이 協議되지안흘가고 觀測되고잇다 英國政府로서는 獨墺合邦에依하야 一旦 中止된 英獨直接交涉의 再開를 조화하지안는 氣運이 强하나 새로운 歐羅巴 安全保障體勢에 獨逸이參加함에는 別段 反對치안코 오히려 이機會를 通하야 獨逸을牽制하려는 意圖에서 積極的으로 五個國協定에 贊意를 表하리라고 期待된다 그리고 一部에서는 英佛協定의締結에依하야 伊太利는 伯林羅馬樞軸을 廢棄하게되지는안흘가 不透明한 蘇聯의 政策에對한無批判的態度를 中止하게되리라고 英佛側에 맛조흔 觀測을 나리고잇다

木戶文相首相會見

【東京電話同盟】政情不安裡에 來十七日 西下 二十日西園寺公을訪問할木戶文相은 出發하기前에 六日午後四時荻窪의別邸에 靜養中인近衛首相을 訪問 兩公과의會見에關하야 여러가지로意見을交換하야今後의政局에 對處할大體의方針을 決定한後豫定대로 十七日午後十時二十分 東京發西下키로되엿다 따라서二十日興津坐漁莊에서의 會見에는 木戶文相을通하야 近衛首相의 時局打開에關한 對處方針을披瀝하야 이에對한 老公의意見을 徵할것으로 보이는바 木戶文相歸東後의 政情은 一層注目할바잇슬것이다

全陸軍에 貯蓄獎勵通牒

【東京電話同盟】長期抗戰下의今日 貯蓄獎勵의 急務가 絶叫되어 그를 爲하야 大藏省에서는 國民貯蓄獎勵局을 設하고 貯蓄獎勵에 盡力하고잇는바 現下의 時局에 鑑하야 陸軍에서는 이와呼應하야 如左히 貯蓄獎勵에 關한 通牒을 發하엿다 十六日 午後全軍에 對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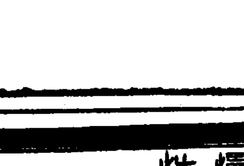
▲貯蓄獎勵에關한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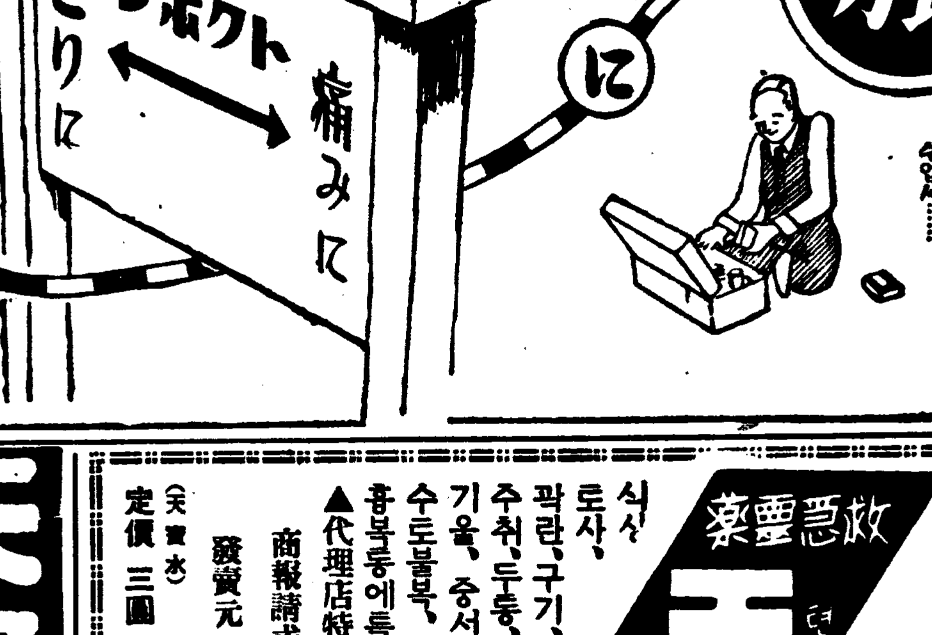
現下의 非常時局에 對處하야 國民一般이 萬事且緊張한 生活態度를 가지어 그日常生活에잇서 消費를節約하고 勤儉貯蓄의 美風을 涵養함이 極히 肝要함은 말할것도업는일로 그結果는 時局에 伴하야 必要한 國債의 消化를 圓滑히하고 또 生產資金의 供給을 確實케하는 同時에 物價騰貴를 抑制하는等 政府의 財政經濟政策遂行을 圓滑히하야 豫算의 運營에 遺憾이 업게하는 所以이므로 各部隊에서는 그所屬軍人軍屬以下에對하야 時局의 認識을 徹底케하야 不急不用의 消費를節約하고 勤儉貯蓄케하도록 獎勵에 特히 留意하기바라며 特히 製造補給官衙에잇서서의 工務員에 對하여서는 될수잇는대로 規約貯金又는組合貯金等의 方法에依하야 事變에伴하야 增加한 所得은 될수잇도록이를 貯蓄시키도록 指導하는同時에 民間軍需品工場에 對하야서도 亦是 關係部隊에서 될수록 널리 貯蓄獎勵의 趣旨를 理解시키어 從業員의 貯蓄獎勵에 適當한 處置를 講케하도록 勸獎하기로하엿다

地方長官異動決定

【東京電話同盟】傷兵保護院創設에伴한厚生、內務兩省의 人事異動은 十六日臨時閣議에서 左와 如히決定 即時上奏御裁可를仰하야 十八日의官制公布와同時에發令될터이다

長崎縣知事 岡田 文秀
任傷兵保護院副總裁(一等)
山梨縣知事 藤原 孝夫
任傷兵保護院計畫局長(二等)
大阪經濟部長 土居 章平
任山梨縣知事(二等)
埼玉縣知事 川西 實三
任長崎縣知事(一等)
富山縣知事 土岐銀次郎
任埼玉縣知事(一等)
厚生省會計課長 持永 義夫
任傷兵保護院業務局長(二等)
岡山縣總務部長 矢野 兼三
任富山縣知事(二等)
內務省會計課長 熊谷 憲一
任厚生省職業部長(二等)
그리고 이에伴한 地方部長級及課長級의 異動은 十六日中에 決定하게되는바 大阪府經濟部長에는 近藤厚生省 職業部長이榮轉키로決定되엿다





トクホン

鎮痛貼付劑

旅に

トクホン 을어제서는 旅行의피로가 올드리에 수업서……

登山이나…

遠路의 過勞、夜間乘車의疲勞로 肩臂關節이 아플때 或은 不意의打撲傷 骨折가튼데 모두本劑를 한번부처두면 깨끗이解消됩니다 特히……

沐浴後에……

浴後의貼付、그爽快함은 比할데업스며 痛症도 疲勞도훌작 날리가버리고 정말 和暢한 旅行氣分을 맛볼수 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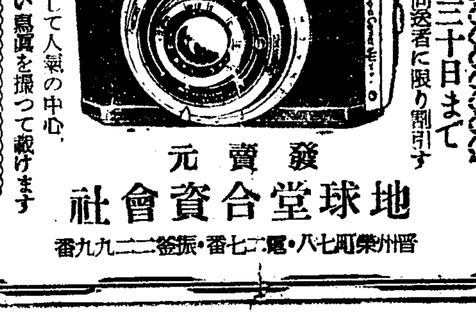
打撲傷 骨折 筋肉過勞 肩腰疼痛 神經痛關節炎 齒痛·乳腺炎 寢後筋肉痛

진득진득하잔코 자리를남기잔코 살빗을깨끗하게하는貼付藥 입니다 무흠이나팔굼치가트데부처도 運動에妨害될이 업습니다

施行地에는 品切될염려가 업습니다 各地藥店에잇습니다 二十錢·三十錢 五十錢·一圓 早携帶하시기바랍니다

見本送呈 주저마시고 葉書로 下記로 請求하시요

發賣元 鈴木日本堂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三·振替東京七七三一番



オリンピックカメラ

今が撮影の好期節

新學期大サービス 特別一割七分引提供 期日 四月三十日まで 但シ此の廣告切取り同送者に限り割引す

小型カメラの王者として人氣の中心 誰にも面白くよい寫眞を撮って戴けます

先づ……此の廣告を切取り四錢切手を同封 カタログ請求下さい。カタログと割引券を急送

發賣元 地球堂合資會社 晉州榮町七八·電二七番·振替二二九番

天野

天野テント商會 大阪西区日吉橋北 …

救急靈藥 天寶水

식상、토사、곽란、구기、수취、두통、기울、증서、중한、수토불복、선차현훈 등에특효。

▲代理店特約店、配置賣藥大募集

商報請求次第無代進呈

發賣元 平壤永生堂製藥社 平壤府新岩里(電話二〇六七番) 振替京城一四一四八番

(天寶水)定價 三圓·五圓

▲五大名藥
一、崔氏秘傳膏
一、胎養調經湯
一、ネツピリン
一、滅癬水其他
各種製藥本舖

慢性 モヒ中毒

元北海道帝國大學醫學部敎授 太黑薰先生創製

オネホンヌーチン

無苦痛根本療法

發明完成

從來의方法과달러서 이無苦痛이며또한如何時日에治療하는新發明입니다 試驗으로라도先五管만써보십시요必然코모히量이半減됩니다

中毒者는 무서워할것업다

一〇cc十管入一箱 一圓(?)注射用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四丁目 電話本局二七九三·七五五〇·四三二〇番 振替京城四五七番·私書函京城八九番

文獻贈呈 警店도安心하고 去來할수잇는藥品賣藥卸問屋이다

天下一品 不老山蔘 機張土種人蔘

玉蒲乾材藥局

釜山府草梁町五六二 電話二六〇四

(月報進呈)

醫學博士 三浦良雄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三浦外科

八階病室完備 京城府黃金町八丁目(京電裏) 電話本局(2)一八〇八(?)

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

熱戰苦鬪의四强豪

今日準決勝戰展開!

最後의榮冠은 京城? 平壤? 淸津? 鎭南浦?

旋風的人氣最高頂에

반도축구사상에 찬연한기록을지을 본사주최와 조선축구협회후원의 제일회 전조선도시대항 축구대회(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의제삼일은 금십칠일 오후한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거행하기로되엿다 선풍적인기를 이끌든가운데 진남포(鎭南浦)、평양(平壤)、청진(淸津)、경성(京城)등의 네강호가 어울린 준결승전이야말로 역사적 백병전임에 틀림이 업슬것이다 이날첫게임은 지난이틀동안에 대구(大邱)와 광주(光州)를 이긴관서의 강호진남포(鎭南浦)와 함흥(咸興)을 주천으로 이기고 광주(廣州)를 격파한사계의강진 평양(平壤)이 대치케되엿는데 이는동향로지격의 량군의대전이는드하나 녜래의올림을 이싸홈에깨끗이 시처버리려고

대기중에잇는 진남포로서는 천재일우의 호기회인지라 숙적평양군과의 결전은 근래에보기드믄 흥미진진한 게임일것이다 이날 최종게임은 판북의 무적강진으로 지난해에 조선대표로 동경신궁대회에 출전하야 용명을떨친 청진(淸津)군과 대경성(大京城)의 선발군과의 준결승전이다 청진이이겨서 녜래의숙망을달성할것인가? 경성이이겨서 명일에거행할 결승전에임할것인가? 인기는 절정에달하야잇다 단결의 청진이냐? 개인기술의 경성이냐 가더욱이 축구인의 가상을흥분케 하고잇다 어하하야 금일의두게임에대한 만도인사의 흥미와 기대는 노출대로 노파저서 오늘의 흥분의두는 사람의바다를 이룰것으로예측된다

場內스냅三景 화창한봄날이자 반공일이라 도시대항축구전의인끼에 어절수업시 이끌려 경성운동장으로 향한시골아씨와 초모된여성군이 스탠드이쪽저쪽에 점섬이보입니다 내고향히리 축복하며 가삽소리고 안저잇는린사람의 경상도, 함경도, 전라도, 평안도 사투리의 합창도때때로이러납니다

新銳三軍의迫力 强敵邀擊善戰

新義州、廣州、鐵原長恨의退却

後戰의 續은 夕刊에 옴

도시대항의 기숙에열린 도시대항축구대회제이일은 작십륙일오후 영시삼십구분부터 진남포대광주(光州)의접전으로 개시되여 진남포군이승리한뒤를이어 평양과광주(廣州)의 제이회전이열리어 오대령으로 평양군이 쾌첩하얏고 경성과철원의대전은 철원군이전투하엿스나 제일선을거려가는 준예들로조직된 경성군과는 실력의차로 어찌할수업시 십이대령으로 철원군장한을품엇스나 철원군은 최후까지 락망의빗조차보이지안코 당당히 대전하야 만장의갈채를바덧다 이날마즈막께임인 국경의강호 신의주(新義州)군과 청진(淸津)의대전은 이대회개막이래 처음보는 격렬무쌍한 전투를전개하야 처음으로 중앙무대에 등장한 신의주군이 일시는 청진을압도하야 위기에 빠지게하드니 드디여 삼대이란 아깃자깃한 스코어로 신의주군이 명년의설욕전을 기약하면서 물러섯다

平壤5 廣州0 【前2-0、後3-0】

【第二次戰】平壤對廣州戰은 同午後二時十分부터 片茂英(主) 李泰鎬、羅泰珍(線)三氏審判下에 平壤先蹴으로 開始된바 結局五對零으로 平壤快勝하야 準決勝戰에서 鎭南浦軍과 對峙케되엿다

◇前半 平壤軍『두리볼패스』로 꼴에리아까지 몰고들어가 CF李君의 가벼운 一蹴은 廣州GK의 손을맛고 골인되여 平壤一點을先取 ◀廿五分에 平壤軍 또다시 左側 먼저라인에서 어든『드로인』을 平壤LW孔君 RW車君으로 好送하니 車君好蹴하야 보기조케 골인되여 一點을 더加하야 平壤二點을리-드하엿다 ◀廣州軍은 여러번平壤의 HB線突破를 試하엿스나 平壤의FB線의『카버』로 失敗하엿다 廣州FW線『패스』의연락이 敵陣活躍치못하야 平壤의HB의 守線을 突破치못하고 平壤에게 二點을 리-드된채 前半戰은 끗낫다

◇後半 十分에 平壤 FW線『두리볼패스』로『페날티에리아』에서 平壤의 RW吳君의『크로스킥』을 平壤의 LI韓君이 받아『크린슛』하야 一點을 加하엿다 ◀十四分에 平壤의 FW線의 前送景이 廣州의 FB線 너무 나서잇는 틈을타서 平壤의LW孔君 골에서의 슛은 보기조케 골인되여 平壤四點을 리-드하엿다 ◀廣州軍 十八分에 平壤의『와일드차지』로 어든 찬스의 페날티킥을 廣州軍『페날티에리아』에서 横木上으로凡蹴 ◀二十二分에 平壤의 LW의『두리볼패스』로『페날티에리아』까지 몰고드러가 RW에게『크로스패스』를 하지 RW다시 CF李君에 好送하니 李君보기조케슛해 廣州GK뿔을 맛섯스나 너무나 强蹴이되여서 뿔을노치고골인 ◀廣州軍은 守勢에서 攻勢로나아가 數次平壤의 陣地에侵入하엿스나 平壤의HB·FB兩線의 구든守備와『와긴』에 得點치못하야 結局五對零의『스코어』로 平壤軍이快勝하엿다(게임七十分間)

【廣州】前	後	計		【平壤】前	後	計
5	7	12	門蹴	3	3	6
1	1	2	隅蹴	0	0	0
4	1	5	自由	2	3	5
0	0	0	罰則	0	0	0

京城12 鐵原0 【前6:0 後6:0】

【第三次戰】京城對鐵原戰은 同午後三時四十三分에 金在殷(主) 車光明(線)三氏審判下에 鐵原先蹴으로 開始한바 初出征의 鐵原의奮戰力鬪도헛되이 結局十二對零으로 京城이大勝하야 準決勝戰에서 淸津과對戰케되엿다

◇前半 五分에 京城의FW線의『패스』奏効하야 페날티라인에서의 京城의RI金君의 크린슛으로 一點을先取 ◀九分에도 다시 京城RI金君의 强蹴으로 一點을加하야 ◀二十四分에 京城FW線의 猛烈한 패스로 페날티라인에서 京城의RI金君의슛은 鐵原의GK를 넘어들어가골인 ◀이어서二十五分도다시 뿔을잡은 京城의LI裵君의 슛은 골포스트左下隅를 뚤코 드러가골이되어 四點을리-드하엿다 ◀二十七分에 뿔을잡은京城의 LI裵君의 골前킥을鐵原의GK바뎃다 노친것을 京城의RW朴君의 好蹴으로 또一點을加하엿다 ◀三十四分에京城의RW朴君 라잇트코-너에서好蹴하야 一點을加하엿다 ◀鐵原軍은 京城의敏活한FW線에 壓倒되여 京城軍이 大對零으로리-드된채 前半戰을마치엿다

◇後半 京城軍은 二分에 LW李君의꼴킥을 鐵原의GK너무나서서 골인되엿다 ◀六分에京城軍『두리볼』前送패스로 鐵原의꼴에리아에서 京城의CF金君의 好蹴으로 一點을加하엿다 ◀八分에 京城의LI裵君의야튼 슛은보기조케골인되엿고 ◀十一分에 京城의LW로부터 猛球를RI金君이 골에리아에서 슛으로 골인하야 京城一點을리-드 ◀鐵原軍은 守勢에서 攻勢로나아가 京城의FW의 左翼으로부터의送球를 京城의RI金君골에리아에서 슛하야 골인되여 京城軍七點을 리-드 ◀鐵原軍은 守勢에서 攻勢로나아가 京城의FW線의 守備線을 突破코저하엿스나 容易하게突破치못하던中 ◀京城廿八分、廿九分 二回에亘하야 連續的 得點으로 京城軍結局十二對零으로 大勝하엿다(게임七十分間)

【鐵原】前	後	計		【京城】前	後	計
12	14	26	門蹴	0	0	6
1	1	2	隅蹴	0	0	0
3	5	8	自由	0	6	6
0	0	0	罰則	0	0	0

淸津3 新義州2 【前2:1、後1:1】

【第四次戰】淸津對新義州戰은 同午後五時八分부터 李宗敏(主)崔延植 韋恩俊(線)三氏審判下에 新義州先蹴으로 開始된바 結局三對二의 씨소께임으로 淸津軍得勝하야 準決勝戰에서 京城과對時케되엿다.

◇前半 十一分에 新義州의FW線은 敏速한『파스워크』으로 一點을 先取하엿다 ◀十五分에 淸津의 FW線은 新義州의 H B線을 돌파하야 페날티에리아에서 新義州R-金君의 골포스트右下隅에 強蹴으로 한차례 白熱化하여갓다 ◀兩軍은 守勢로부터 斷然攻勢로 나아가 兩軍의 FW線의 前哨戰이 繼續되던中 十九分에 淸津의 CF姜君 新義州의 페날티라인에서 골포스트 左下隅側에 强蹴하야 골인시켜 도리어 淸津軍 一點을 리-드하엿다 ◀新義州의 FW線은 猛烈한逆襲을 敢行하야 淸津의 FB線의 비틀거리는 틈을 타서 여러번 淸津의페날티라인까지 肉迫하엿스나 重要한瞬間에 新義州의FW線의『파스원』이 統一되지못하야 得點한채 前半戰은 마치엇다

◇後半 新義州軍一點을 回復코자 FW線은 果敢한 攻勢로 나아가 淸津의 FB線後方을擾亂하엿스나 左右兩翼이는 ... 저서 ◀十五分까지 淸津軍에 밀동이엇기 前半 一對一로의 形勢로 進行中 淸津의 FW線은『두리볼-파스』로 猛烈히 前進하야 新義州의 FB線을 버리고 淸津의 正確한 포지숀을 지키어와 ... 이進行中◀十九分에 果然新義州의RW선수『두리볼』파스로 淸津의 HB·FB兩線을 突破코 보기조케 큰린킥하야 一點을어더여기에 또다시 二對二의 同點의 白熱的께임으로 化하엿다◀淸津의 FW線은 二十二分에 敏活한 파스로 新義州의 페날티에리아에서 淸津의 LW의 크로스킥을 淸津의 CF姜永?君 골포스트左下隅에 强蹴골인하야 三對二의 스코어로 도리어 淸津이 一點을 리-드하야 씨소께임을演하엿다◀二十四分에 一點을 回復코자 新義州軍의 FW線의 總動員으로 一擧淸津의 꼴에리아까지 壓迫하야 골前混戰中新義州여러번 機會를 어덧스나淸津의 GK의好守로 노-골되엿다◀新義州軍一點을 挽回코저最後의 總攻擊을 敢行하야 淸津의FB線까지 여러번 突入하엿스나 新義州의 FW너무 急하게서둘러 도리어『파스원』에連絡을 어지못하야 結局 三對二의 스코어로 新義州軍惜敗하엿다(게임七十分間)

【淸津】前	後	計		【新義州】前	後	計
4	3	7	門蹴	8	6	14
2	3	5	隅蹴	1	0	1
2	2	4	自由	3	1	4
0	0	0	罰則	0	0	0

早大6A 立教1

【東京電話同盟】東京六大學野球리-그戰早大對立教의 第一回戰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立教	0	0	0	0	0	0	0	1	0	1
早大	1	0	4	0	0	0	0	1	A	6A

大會의花形 鐵原軍!

對京城戰、百折不屈의氣魄奔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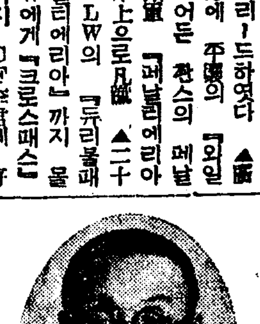
滿場觀衆拍手喝采

대회의 제이일 인기의 께임으로 십이대령의 엄청난『스코어』를 내인강원도 철원(鐵原)대경성군의 접전이 잇섯다하면 듯기에 의심스러울지 모른다나 이께임이야말로 만장을 흥하게하고 또열광적 응원의 소래가 장내를 뒤덥헛다 이번대회의진행에 어느째이나 운동정신을십이분발휘하야 선사적인 아름다운 싸홈을 한것은 말할것 업거니와 여두될의 접전에서 더욱 그러한것을 기괴하엿다 올림픽선수로 김용식(金容植) 배종호(裵宗鎬)군등이 끼인경성군을 마지한 철원군은 본대 적수는 아니라하지만은 아직충만에 명성을 못가진 철원군으로서 대체 우승 후보중에서도 유력한 경성군과 대전케된것은 오히려 때를만난 접전이라는 의기를 가지고 전군이 이를악물고 공격으로 용감히 노장의모힘인 경성군은 실력본위의 기술로 장내로의 신축귀몰한 경기로 웅사 거리지고 또 자연서도 오히려 전투력을 다하야 기운차게달러 부터 차우는데 만장의 군중은 철원군의 열엇슨 태도에 감복하야 어느듯경성의 인사까지 철원군의 응원으로 돌아가버리고 말엇다 이가러하야 전적으로는 십이대령이라는 처참한 때전의 기록을 남기고 나오면서도 철원군은 오히려 비장한 가운데 웃음을 띄우고『어-유쾌히 잘싸웟다』고 웨치는것이다 이에전편중은 철원군의 열전을 찬양하야 박수갈채로써 개선군가티마지하니 이야말로 대회의 귀한 새기록이 아닐수업섯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朴聖權 氏

文化事業에 金鑛을寄附

成川李堯均氏美擧



평남 성천군 사가면 장림리(成川郡四佳面長林里)에사는 리요균(李堯均)씨는 부내대동광업(大同鑛業)의 리종만(李鍾萬)씨가 사회사업을 하는데뜻을가지고 만허서 십오일 리종만씨를 차저와서 자기소유의 성천군대구면(大邱面)에잇는 시가 삼십만원의 금광(金銀鑛區)를 일개소를 문화사업에 써달라고 증여하엿다고한다 (사진은 리요균씨)

內鮮一體의精神 外地에도徹底

中央部와意見一致

지나사변이일어난후 조선이천삼백만민중이 애국의열성을다하여 참다운 황국신민이되여가지고 내선일체운동에 힘쓰이만힛고 오늘와서는 내선일체의효과를여러방면으로 나타내고잇는데 남총독은 한거름더나가서 그단단한정신을 만주북지며 중남지방면에잇는 조선인에게도 철저히인식시켜 그곳에가서 보호, 무육, 지도(保護, 撫育, 指導)로어근본정신에 의하여 일시동인(一視同仁)의시설을 구체화할의향을가젓든바 송전외무부장(松井外務部長)이 전기총독의의향을가지고 동경가서 중앙부와의의견교환을 해달래라 외무성(外務省)과 군부방면에서도 최근의조선정정을 리해하고어번에 외지에잇는조선인에 대해서도 내선일체의근본정신하려서 헤나가기로 의견이 일치되엿다 구체적 · 세성에 대해서는 총독부와 외무성당국과 신중히협의한후에 차차실현하기로 하엿다한다 첫재로 송전외무부장은 오월상순경 상해에가서 중남지방면에잇는조선인의 지도에 대하여현지당국과 복지에가잇는 남총군전경간부간에 현지에서간담회를 하기로하고잇슴으로 금후 지지를 표명하고잇슴으로 금후 내선일체운동은 만주지나방면에서도 통털이 머지안어 거대되고잇다

一寸舌이長廣舌

緊張과興奮은"마이크"에도 今明日도中繼放送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도시대항축구의 백열된전황을 각지에산재한 축구팬들에게알리기위하야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서는 경성운동장스탠드한구석에 진치고 신진아나운서 리계원(李啓元)씨의 전황그대로의 실감이 넘치는 설명으로되여 전파를타고 내고향의건아들의 승리를 축복하는 할리인사들에게 들려진다 (사진은 장내의방송실)

日曜講話

◇自國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要人의復活이라 金應子氏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福音의復活 李鍾周氏 午後七時半 예수다시사심 沈明燮氏
午後七時半 復活하신耶蘇 金永燮氏
◇石橋教會 午前十一時 勝利의主 朴濟璿氏 午後七時半 未定 朴仁燮氏
◇基督教會(仁川 松峴町教會) 午前十一時 復活 金明顯氏 午後七時半 主로자랑하라 金明顯氏
◇仁川하느님의教會(水門通) 午前十一時 復活 金昇萬氏 午後七時半 信者의義務 金昇萬氏
◇覺皇寺 午前十一時 金昇萬氏

今日 都市對抗蹴球第三日 【準決勝戰】 平壤對鎭南浦 午後一時正刻 京城對淸津 午後三時四十五分 午後一時半부터京城運動場에서 入場料 學生二十錢 一般十五錢 (團體割引은가진분은十三錢으로) 本社主催

未成年者禁酒禁煙法 實施祝賀會

南總督臨席下에 十八日府民館서擧行

지난삼월부터 실시되는 조선의미성년자 끽연음주(喫煙飮酒)금지법에 대하야 여러해동안이 법령실시운동에 노력하야오든미성년자 끽연음주금지법실시촉성회(促成會)에서는 오는십팔일오후두시에 부내태평통(太平通)부민관대강당에서 동법실시축하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당일은 남총독(南總督), 척무대신대리 부도척무성서기관 의 림석을 비롯하야 각처 경기도지사(甘蔗京畿道知事)、좌백경성부윤(佐伯京城府尹)、림일본국민금주동맹이사장(林 日本國民禁酒同盟理事長) 명곡조선협회장(朝鮮協會長) 등유민제씨의 축사가잇슬터이다 이회합은 회기적 의미잇는 자못성황을 예상하게되는데 각방면인사의 다수참석을희망한다고한다

夜櫻期間中에 一部交通制限

금년도 창경원(昌慶苑)야앵기간인 십구일부터 이십륙일까지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위하야 창경원을 중심으로 혜화문(惠化門)까지사이원남정(苑南町)우편소아페서 창경원『에파-트』압까지라고한다 일부의 교통금지를 하게되는데 시간은 오후여섯시 삼십분부터 열한시까지며 구역은 종로사정목에서 창경원을지나 혜화문(弘化門)까지이며 또한금지조옴은 자동차 우차 마차 인력거 손구루마『오-트바이』등이다

총딱

때는 꽃피는 봄이라는데, 자살이 웬일인가, 나이는 청춘에 또수재라거던 아까다뿐일까 ▲작년에 복어알먹고 중독된것이 이백오십명이 오백명, 그러고 면중독된것이 복어알에죽은것이 칠십구명, 과연먹고사는일이 이러케 크다고 야롤탓지안흘가▲도시대항축구의 인기는절정자로노파간다, 오늘이일요일이요, 준결승전! 괴로운 세상과 싸와나가려는자이여절후니를 의 싸홈을 한번보고보바드라

曆

◀四月十七日(日曜)陰三月十七日 ◀干支 己卯 ◀日出 五時五十七分 ◀日入 十九時十分 ◀日南中 十二時卅三分十六秒 ◀晝間 十三時十二分 ◀月出 廿一時四十五分 ◀月入 七時九分 ◀滿潮(仁川) 零時廿五分 十二時五十分

姜耳鼻咽喉科
醫學博士 姜日永
入院室完備
京城仁寺町一三七 電話光三一七一〇番

文房具·事務用品 在庫豊富大都賣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寬勳町四番 電話光三七〇番 振替京城16121番
卸目錄要三錢切手

サンセイの人工鼓膜
サンセイ商會

諸鳥獸高價買入
山口屋小動物園
東京下谷入谷三九〇

桃屋の花らっきょう
봄의食卓에 消化를돕고 食慾을增進합
各百貨店及食料品店에 잇슴

朝報案內
圖書 に趣味ある普通學校卒業程度の女子十數名至急採用す 竹添町赤十字病院正門前

自動車 運轉手養成!最高權威! 京城自動車學校(京城府太平通)로申込 入學規則發呈 來問歡迎

和信商品券 商品券高價買入 地方에게신분은照會하시오
伊藤株式現物店 平壤府大和町(金千代座前) 平壤局私書函一〇八號 電話二三六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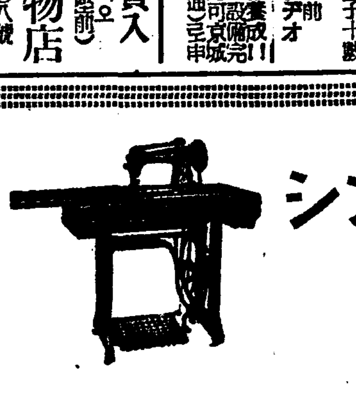
武田發賣品
淋疾
急性이나 慢性에도 잘奏効합니다
其他淋疾性副睾丸炎、淋疾性關節炎 淋疾性攝護腺炎에 賞用됩니다
イスラビン糖衣錠은 醫家用淋疾治療劑イスラビン(靜脈內注射用)을 改良해서 靜脈內注射에 依지안코 簡單히 內服療法으로 奏効하도록 考案한 新治療劑입니다
勿論副作用도 업고 또 그殺菌作用은 오히려 注射時보다도 特優하는 特長이잇습니다.
(用法) 一回一、二錠을 一日三回每食直後服用
イスラビン 糖衣錠
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衞商店 大阪市道修町

栗冠 新王
シンオーミシン代理店募集
舶來品을 壓倒하는 我國產品中最高級 裁縫機械 シンオー
萬國ミシン界에 新王이 當當君臨
五大特長 純鋼鐵製 操作輕快 騷音全無 裁縫精密 價格低廉
新王ミシン洋行 平壤府新倉里九五 電話一四二九番
申込次第型錄進呈

カゴメソース
家庭에서만든料理도 맛이잇습니다.
年末年始의宴席料理에必要하오니 당신에게 家族과カゴメソース가 따뜻한情과풍부한맛을 準備하고기다리는것을 記憶해주십시요
カゴメケチャップ本舖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名古屋市外上野村

朝鮮總督府技師 工學士 金聖浩 著
鑛山經營法
內容 第一編、序論、第二編、地質學、第三編鑛物鑑定法、第四編、一般金屬鑛床成因及鑛床、第五編、探鑛、第六編、鑛山測量及諸法、第七編、金鑛製鍊法、第八編、混汞製鍊法、第九編、消化製鍊法、第十編、選鑛法、第十一編、金銀乾式分析法、附錄 新規鑛山出願、鑛物登錄申請手續
定價 四圓八十錢 送料 三十錢
發行所 京城府 晴嵐社 振替京城二六二五八番

奉天測量學院生徒募集
本科五十名 速成科五十名 研究科若干名
出願期日四月三十日 考試日五月三日
奉天市十間房郵政局前 電話二四六大



中部版

楊州小學正門 直通道路開通
地主文承阜氏寄附

【楊州】양주공립심상소학교(楊州小)정문으로 출입하에는 이정면에잇서서 좌우로 우회하야 출입하게되므로 통학에 불편하야 어린이들의 부형과 학생들이 귀찬케생각하든터인데 이번에 천원(千圓)을 들으로 지주문승부(文承阜)씨의 희사를어더 학교정문으로부터 군청으로통하는 도로까지 직통으로 통하기지 뻐더 넷시가 천여원을 기부하야 드디어 공사에 착수하리라한다

埋葬하러가든道中 棺속에서"응아"! 슬피울든부모갑작이웃게돼
仁川嬰兒假死騷動

【仁川】죽엇다고 매장허가 내려가사이에 소생한거짓말가튼참말—인천부내 화의정 이백삼번지 농업강원영(姜元永)씨의장남 덕근(德根)(一)이란 어린아이는 수일전부터 감기로 치료중이엇는데 지난십삼일 오후두시쯤에 사망하엿슴으로 그집에서는 방성통곡을하는 한편에 인천부에 사망계(死亡屆)를 제출하고 매장허가를어더서 그날오후 일곱시쯤에 화의정공동묘지에매장을 하러갈때에 관속에서 우는소리가 나므로 깜짝놀내여서 덕근이가살엇다! 이런일이어데잇나!하며 관을깨여서죽엇다는 어린아이를 꺼내노코 울든부모들은 별안간에 우승판이 버러젓다한다 의사를 불러다가 진찰을한결과 심장마비(心臟麻痺)로 가사(假死)가되엿다가 어떠한기회인지 심장이 활동을시작하여 소생된것이라한다

盜賊해다고서 소를도적한犯人
江華署에서逮捕取調

【江華】현주소를 광혀도 연미군 오정면 이동리(梨洞里)에는 이용철(李龍哲)은 지난십오일에 요사하한 소학생을 알게되자 돌가를 요심이 생기여서 자기가 전에살든 교동도(喬桐島)로 소도적질을 하기시작하엿다 위선 배를엇기위하야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橋山里)해안에 이르러 거루배 한척을 훔치여가지고 그길로 교동도 읍내 (江華郡喬桐面邑內)(二七)씨집에 매여둔소두마리를 끄러다가 배에실고개성(開城)방면에가서 현금삼백삼십원에 팔아가지고 도박과 유흥에 소비하야버리엿다한다 이사실을 탐지한 강화경찰서에서는 구형사(具刑事)를 현장에파견하야 개성서의응원으로 전기범인을 체포해왓는데 공범자도잇서 이를 지명수배중이라하며 범인은 도주지 자백치를안는 중판 남사일부터 오는 십팔일까지 각면을 돌며서 일제히 좌담회를 고잇다 용이 중요잇다하야 일반농가에서는 전혀하야 마지안는다한다 그리고 도회한때는 그대로 내버려서 다시양사면내면에 하는것을 연안주민이 어름을 어 두엇섯다 아직것주인이 나서지를 안는다고 한다。

天主教所有土地 地貰一躍倍引上
仁川旭町五十戶狼狽

【仁川】한룡안동현정(松峴町)의 땅세(土地)문제로 지주와 차지인사이에분쟁이 만엇다가 양자간의 해결이되지 못과며칠이 안되엿는데 또이번에는욱정(旭町)서도 땅세를 올림일이 문제가생겨서 말성이생기고잇다 즉욱정오번지로부터 이십사번지까지의 구역안에 오십여호가 사는곳은천주교회소유로 대개정비자들이 사는터인데 작년에는 종전에매평에 땅세를산전밧든것을 쯕전으로 올렷스며 요지음에는 또육전을 일약십오전으로 올려서징수한다하야 주민은 반대를 일으키는데 그교회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드르면 무리한 인상을하지안흘듯하며 판리자가 중간에서 롱단하고잇는듯하다하야 차지인측은 직접지주인 천주교회의 무리한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리라한다

十七日午前에 京安金組總代會

【驪州】경안금융조합에서는 오는십칠일오전열한시부터 그조합사무실에서 정기총대회를 개최한다고한다

江華金組總代會 役員表彰及改選

【江華】강화금융조합제이십칠기총대회는 십오일오전십일시부터 강화읍 서내소학교내에서 조합장홍두섭(洪斗燮)씨 사회아래게최하얏는데작년도 순이익이 일만오천칠백육십이원오십이전이라는 조흔성적을 내엿스며 당일에는 모범역원 최창희(崔昌熙)씨의 표창식이 잇섯다 그러고 만기된 평의원 팔명과 감사삼명의 개선이 잇슨뒤 폐회하얏는바 당일개선된 신역원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監事 張吉煥 金顯鎬 金在璜 ▲評議員 李泰鉉 黃運淵 尹瀷 金永培 權泰國 黃乾天 安鍾燮 方甲祚

겨우한달동안에 仁川物價三割高騰

【仁川】인천부내 물가지수는 지난삼월중 물가지수를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월에비하면 삼천정부지의 등귀를 보히고잇다 그중미곡류를 전월에비하면 삼할이상이며 금속이 이십이할칠부나 올르고잇섯다한다

京城府議都市視察

경성부에서는 십일일 오후두시부터 사층의원회실에서 부회의원의 항례의 도시시찰에대한 협의를하엿는데 그결과 금년은 두반으로나누어서 제일반은 북지(北支)각지를 제이반은 일본내지 각도시를시찰하기로 결정하엿다 오월중순경에 출발하야 오월말에는 도라올예정인데 시찰의원은일간 발표하리라고한다

楊州郡眞乾面長更迭

【楊州】양주군진건면장 (眞乾面長) 김현경(金顯慶)씨는 면장으로 취임이래 십여년간 하로가티 면행정에 농촌진흥에 남긴 공적이 적지안호며 진건소학교의 신설에, 또는 간이학교(簡易學校)의 신설에 만흔노력을하얏스며 이번에 용퇴하얏다 일반의 애석하는바 적지안호며 후임으로 면내에서 신망이두터운 심종덕(沈鍾德)씨가취임하얏는대 신구학문에 조예가깁다한다

工業用水合格地는 永登浦와徽慶町
京城府에서調査한結果

경성부내 공장수가 천을헤아리고 그연산액이 일억원을 칠신돌파하야 공업경성으로의 약진은 이제소비도시의 경성을완전히 생산도시로 발전하고 잇는데 경성부에서는 공업경성의 일층발전을 위하야 영등포(永登浦)와 한강(漢江)연안과 서부경성 동부경성의 공업지역(工業地域)을 지정하기로되여 최근 그지역에 빼처서 공업발전상가장중요한 공업용수(工業用水)의 조사를 하엿다 각지역의 용수를 조사하기위하야 착정공사(鑿井工事)와 양수시험(揚水試驗)과 수질(水質)조사를 세밀하게 하엿는데 이제 그조사결과를보면 청량리(淸凉里)방면의 전농정(典農町)은 양수량이 적고 휘경정(徽慶町)에서는 그곳중에지대용수는 중랑천(中浪川) 부근에 지하복류수(地下伏流水)를 수원(水源)으로하는 집수매관(集水埋管)에의하야 취수(取水)하는때에는 상당한 수량을 어들수잇다 마장정(馬場町)에서는 다소의 양수(揚水)가 잇스나 이곳은 청계천(淸溪川)에서 나분물이 새여들어서 수질이 불량하야 공업용수로서는 적당치안타 그리고 연희정(延禧町)에서는지질(地質)에 청색점토층(靑色粘土層)이 만허서 양수량은겨우하로에 사십립방(立方)미돌바게안된다 망원정(望遠町)에서도 점토질이 만허서 가성공업정도의 용수밧게안된다 이를 게량하여보면 지층(地層)은 각곳이모다 지표(地表)로부터십사 오미돌에 밝서 암층(岩層)에 다어서 사력층(砂礫層)파 가튼 대수층(帶水層)이 열버서 대공장용으로 다량의양수량을 엇기는 곤난하나마 휘경정(徽慶町)은 중랑천이 잇서서 상당한 양수를 할수잇다 중소공장용수로서 적당하겟고 그밧게는 가성공업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영등포(永登浦)일대와 망원정(望遠町)으로부터 마포(麻浦)까지의 한강연안은 무한한 용수가잇고 철도(鐵道)와 주즙(舟楫)의 이편이 잇서서 대공장지대로서 매우적당하다 그리고 한강부근아닌곳도 한강물을 이끌어서 그공장용수를 해결하여나갈수도잇다 이용수조사가끔후 더욱게속진행될터로 공업경성의 장래는 크게 발전하리라고한다

開豐郡內四千車輛 一齊鑑札檢査

【開城】개풍군내의 차량수는사천여대를 돌파하는데 그중에는

文盲에서光明에로 千餘名이文字解得
開豐郡文普運動所得

【開城】개풍군(開豐郡)당국에서는 군내에 산재한 농민중에문맹의 암야에서 헤매는자와 또는 배움에목말러하는 무산아동들을 위하야작년 십이월일일부터 금년사월말일까지 약오개월간의 농한기를 리용해서 판내십오면을 통하야 문자보급야학회를 개최해왓섯는데 금년도성적은 이왕의실적에비처 리군수(李郡守)의 철저적 독려로인하야 가게부(家計簿)를 자필로기록할수잇슴만큼 교양을 밧은농민이 남자가일천일백오십구인—여자가오백사십삼인—합계일천육백구십팔인의 다수에 달한다는데 금번군당국에서는 한거름더나아가 그들에게 농도(農道)의 정신을 갈르치기위하야 「농민독본」을 옮다수 공동구입하야다가오는 배부해주리라한다。

內田組測量助手 大金을窃取逃走

【烏山】자기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비이를틈타서 청업하야대금을 절취하야 자전거로도망한 대담한 절도자가잇다 경부선오산역전(京釜線烏山驛前)에사무실을둔 복선공사(複線工事)청부업(請負業)내전조오산출장소(內田組烏山出張所)에서는 십사일오후 여섯시쯤하야 사무원들이 업는틈을타서 동출장소 측량조수(測量助手)로 원적을 평북영변군성내동북동(平北寧邊郡城內東北洞)에둔 김송제(金松濟)(二)가침입하야 잠거든 다랍문을 부시고 현금오천구백오십원을 절취하야가지고 박게잇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인지 종적을감추엇다 동일오후여섯시에야알고 소판오산주재소에 고발하엿다하며 이급보를접한 주재소에서는 범인의행방을 엄탐하는중 동일오후여덟시에 범인은 부근 소년이 병점(餅店)에서 숨자한듯하다는정보를어덧스므로 방금범인을 가처수배하야 찾는중이라한다

元町↑↓麻浦사이에 江上道路遂開通
京電에서는빼스를運轉計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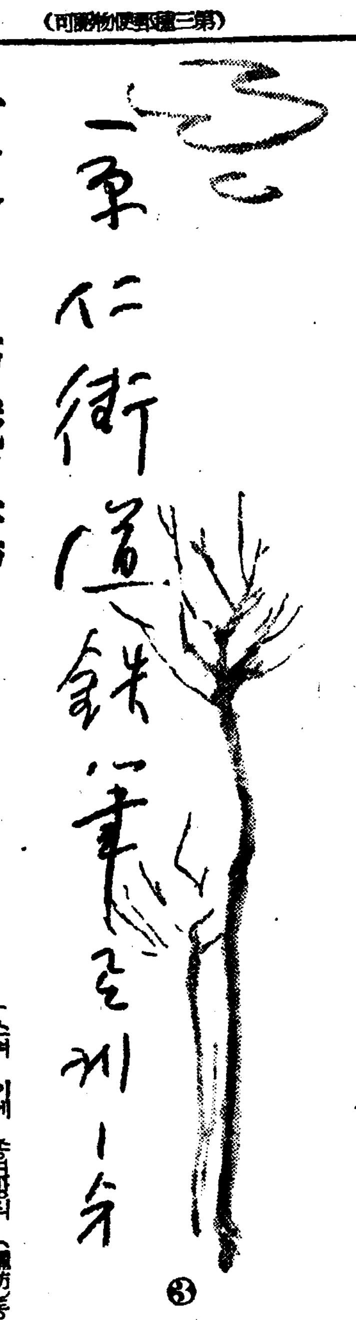
이천바다에서 올라오는 해산물과 강원도오지에서 내려오는 장작、야채등 여러가지 산물의 집산지로서 경성의인후가되여잇는 마포(麻浦)와 룡산(龍山)간의 교통연락은 극히불편한상태에잇서 그근방 한강연안은 풍경이아름다운 이상적주택지역의면모를 가추고잇스면서도 그부근주민은물론 일반의 이용이적어 유감으로 여기고 잇던터인데 작년부터 원정(元町)전차종점에서 한강연안을 끼고마포전차종점에 이르기까지 약이키로의 도로공사가 진행되고잇더니 요지음그것이 완성되엿다 그리하야경성전기주식회사에서는 이선로에 빼스를 운전하라고벌서부터 경기도에 허가원을제출하고여가지 여기에대한 준비를 진행해두고 허가가 나는대로 곳개통할터인데 대개오월중순경이면 개통되리라고하며장래에는 여기에 전차선로를 연장시켜서 마포용산간 선을만들 계획이라고한다

六十個所部落에 殖産契設定準備

【開城】농가의 개생과 부락의 진흥을 위하야는 오직 인보공조(隣保共助)의 정신미테서 경제적으로 도움만한 단체를조직

地方人事

▲西村竹市氏(前楊州小校長)京城恩賜小校榮轉人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村上茂光氏(前佳納小校長)安城寧小校榮轉人事次同上 ▲差齋嵬氏(前楊州小訓導)驪州郡小校榮轉人事次同上 ▲郭熙俊氏(漏水金組理事)入邑本報江華支局에 人事次來訪 ▲神谷富彌仁氏(殖銀仁川支店長代理)同上



右便에는紡織工場 左便엔麥酒會社
叢立한굴뚝에서黑煙이衝天
永登浦는工業地帶

경인일체의 출발점은 이곳영등포이다 경성부에 편입되여전에는 시흥군영등포읍이든것이갑작히 커이버리저 영등포정(町)으로는되엿슬뿐 인구오만의대도회지다 웬만한부(府)쯤은당할만한 도뒤려볼정도이다 그만이라한 대파회문명의 소산인 신흥공업지대로 대공장이출비하야 잇는점으로는 큰지역인서울도 어림업슬만치큰공장이만히 모혀잇다이곳은 경인선과경인가도를사이에두고일대소비도시인 경성과 무역항인 인천과 갓가울뿐아니라 부근일대는 넓다란 영등포들이버러저잇고 한강을 끼여 물이흔할뿐아니라 수질(水質)이 공업용수(工業用水)로 가장적당한것、노동임금이 싼것등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이 구비하야잇는 판거로 일즉부터 공장지대로 주목을밧게되엿다 약이십년전에는 지금군수품으로 날개가 도친 가죽만드는 조선피혁회사(朝鮮皮革會社)가 이곳에 공장을 지엇고 객차、화물차를만드는 룡산공작회사(龍山工作會社)가 생기후 소화륙년의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이 생기자 만주진출에 유리한지점이라는 큰조건하나가 더생기게되여 잇해후에는 기린과 삿포로맥주회사가 생겨 맥주당의 환영을 밧고잇스며 이에 종연방적(鍾紡)동양방직(東紡)등 최대방직회사분공장이 우후죽순적으로 동장하야 약 이십년전부터 김연수(金季洙)씨가 경영하야오는경성방직(京紡)에 일대위협을 주게되여 동 회사에서는 시흥역(始興驛)아페사노흔 칠십여평의 제어공장기지는 평로까지다마리고 공장을 지을가말가혀세를 판망하지안흘수업게되엿다이밧게 경기염직(京畿染織)과 창화공업(昌和工業)이란는 염색가공회사가 잇서이공장들이수용하고잇는직공수는 영등포총인구의삼분지일인 일만오천명이상에달하는 현상이다 대일본방적(日紡)이 공장을만들야고 용지오만평을 이미 사노핫고 김사연(金思演)씨등의 중앙소주회사(中央燒酒會社)를크회사 제국산소회사(帝國酸素會社)등의 대공장을 비롯하야 중소회사공장이 이곳에모히기로통은 결정후은에 정하고잇는 형편는 듯기만하야도가슴이시원한 이야기이며 그비약적발전은비유가 좃타한듯하나 명약관화(明若觀火)이라고하겟다 이미결정된 이런정세에 디여질는데 몃치는견으로 생긴것이이번의 지나사변으로인한 북지경세의일변이다

천진(天津) 청도(靑島)란는바다로부터의 복지판로와 제일갓가운데잇는 인천항이 첫재로그영향을밧지안흘수업스며 이판개는 공장지대영등포일대를 가만히 두지는안흘것으로 벌서부터 영등포 일대는 대단한 활기가 보히다 즉 일만경제평이 일만지로 확대되고 잇는오늘 영등포를 중심으로하는 경인일대는 일본안에서 어느곳보다 중요한 따라서 유리한 곳이되고 잇다 지금잇는 공장들이 조선안소비에 대한 공급에 만족지안코 북지진출을 노리고잇는것은 언거니와다른공장들이모든점에 잇서서가장유리한이곳으로 모힐것도 당연한 순서로 력사에대한 예언(豫言)은 가장 위험한것이지마는 영등포는십년안에 십만이 되는 대공장도시로 자라날것으로보히인천과의 거리는 영등포 쪽에서 급행호로 가까워질것이다

그러나 영등포가 이와가튼발전을하야 경인일체란는말은뿐아니라 입장에서 하로바삐해결되지안흐면 안될문제가 여간만치안타。 얼는머리에떠오르는 큰것만멧가지를드러도

一、우편소를 우편국으로 승격시키는동시에 전화를경성내와통화시킬것

一、로량진까지의 전차선로를 영등포까지 연장시킬일

이와가티하야 통신망과교통망을 완비하는것은 공업도시로서의 발전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다 이밧게 시가지구획정리 로량진,영등포간의전보장(完全舗裝)문제,여의도비행장의 전문제등이 영등포발전상 큰조건으로 되여잇스나 구획정리부에서 삼백십오만원 삼개년게속사업으로 금년사월부터 벌서착수하엿고 지금질한가운데 자동차다니는곳만 포장한것도 멀지안어 길전체가 될것이며 비행장도 여러가지관게로 모든정세는 영등포를위하야 전부편리이다 여가에최근에 이르러 도하나를통한이야기는경기도에서 금년봄부터 새로만든 공업학교기지가 인천이니 개성이니하다가 결국은 영등포것이되여 번대방정(番大方町)에 기지로 벌써오만평을 사노흔것으로 공장어 즐비한발거리를 「벤아리엔지니―어」들이 활보할날도 멀지안케되엿다 경성으위하는것이다 이천따문이 아니라 영등포는 자신이 자라나 이웃사람까지 살게만드는 파경에잇다고하야도 지나친말은 아닌것이다

(그림은 영등포 큰길거리)

文 金東煥 畵 金龍起

(カタログ進呈)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大和町通五丁目一五 電話本局(四八八四)(七八二)
大馬力 一百馬力
아구로式 티ー제루機關
クボタ
一馬力半 二馬力
輕油、石油發動機
特許 히에注意하시압
同名(クボタ)類似品잇슴
大阪 株式會社 久保田鐵工所製

リート式穀物膨脹機 돈벌기大王
五合의米가八升되는 米菓子製造法傳授
大阪市北區新地 田町九番地 (カタログ進呈) 兒島製作所 (電話北3238番)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少年 단十錢

輕便洋服收納器と自動開閉洋服覆器
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折疊式
輕便洋服收納器 三個付掛
大特價一個 二圓九十錢 (一個小包送料九十五錢 二個小包送料一圓五錢)
長三尺六寸
本品は室の何れへでも掛けられ中央より吊下の兩用になる體裁優美なカーテン張り洋服タンス代用の流行品です三着分以上の洋服オーバ、ズボン、ワイシャツ、ネクタイ等一切掛付です。
(折疊寸法) 長一尺一寸 巾一尺二寸 八寸
自動開閉洋服覆器 三個付掛
大特價 一個 四圓五十錢 特製別珍ブロック 五圓二十錢 一個の小包送料 代引九十三錢
寸法 カーテン横二尺一 長四尺八寸五寸
本品は掛吊兩用自動開閉の出來る優美なるカーテン張の洋服ダンス代用品で洋服ズボンワイシャツ等三着分に適し體裁のよい室內裝飾品です
◎特約店大募集 カタログ無代進呈
輕便カーテン張タンス代用品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六九番

養へ体力
日魯のあけぼの印 オーロラ印
さけの常食
さけ罐詰
AKEBONO SALMON PINK あけぼの さけ
製造元●東京●日魯漁業株式會社
發賣元●東京●北洋商會株式會社

チM-3

十人
十色이란말은 삐ー루에잇서서는全然通用되지안는가보군 자ー
보십셔요十人이면 十人 여다 삿뽀로黨이아니요
サッポロビール
朝鮮麥酒株式會社

애기를오동통하게하는 밀크
獨特한 低溫濃縮
森永ミルク
먹으면살찌고 살찌면웃고 웃는얼골에 봄이왓다
森永煉乳株式會社

昭和の常識
失敗그저이損失이아니라 失敗했다고 돌볼때면버리는것이큰損失
他の半量で濟む
先生が齒を抜く
醫師라도不注意하면 齒를가안된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日常齒磨는 愛用하는 第一步로 「仁丹の半煉齒磨」로 健康한이를만드러주십시요!

仁丹の半煉齒磨

演藝娛樂

映畵팬의手帖

(내가第一조와하는)

修道院場面

"名金"에서 "瞬間의幸福"까지

沈載淳

봄볕이름서도 정다운아치사지 공원(新嶺公園) 여름지나 산기슭 드노피서롱을 내려다보는 밀운동(密雲洞) 꼭대기두어 간아가와평화롭게 지내시는 심재순여사(沈載淳女史)를 차저갓더니 마침 부군유치진(夫君柳致眞)씨가 나오시면서 반가히 마저주신다.

벽에걸린 액면(額面)속에는 고색이창연한 「인성(靜聖)」「그래타·가르보」가 선비로운 눈으로 어느허공(虛空)을 응시(凝視)하고잇다 영화(映畵)의 역사(歷史)를 더드머오다시피 여섭년에가까운 『영화팬』이라기보담 영화를 생명(生命)과가티 아끼고 때로는 생활(生活)이상으로 소중히하여온 여사에게 영화에대한 여야기를 물엇다

◇

記『언제부터 영화를 보섯읍니까?』

沈『열한살때부터엿스니까여 십년가까히됩니다』

記『여학교시대에 보신영화중에서 제일 감격되신작품은?』

沈『프랜시스、포-드의명금(名金)이 애요 그리군 동도(東道)찰필 제일 인상에남은것 메리、마크라렌」의「구두」라는작품입니다 어영화를보구선 어떠케 울엇는지 몰라요 그러구보니깐 또잇서요『죤、베느트』와『콜만』의『스테라、다라스』입니다』

記『그때는 어느극장에다니섯습니까 혹시 그때한겨단어든 동무는 업스서요?』

沈『그때야 우미관(優美館)하구 조선극장(朝鮮劇場)이 그후에생겻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식은 적어두구경갓습니다 동무요? 동무보다두 전 아버지를 따라만히갓서요』

記『그시절에 제일조와하신 배우는 누구엿습니까?』

沈『메리、마크라렌』『아원나지모바』『루돌프 바렌치노』나 다조와햇죠『빠렌치노』의『血과砂』참조와서요』

◇

기자는 회제를 동경시대(東京時代)로 올마가다 여사의무릅에안긴 세살된 언명과가티 귀여운딸 이청의 머리를 만지며

沈『동경가서는『라몬·나빠로』를 제일조와햇서요『肉體』를 부르는소리』니『이교도(異敎徒)』니『나비론』의영화는 빼노치안코 다밧서요』

記『토-키된후 보신영화중에서 특별히 인상기프신것업스서요?』

沈『토-키된후라기보다도 동경잇슬때 본영화중에선『빌마·방키』와『코른만』의 콤비로된 비연무곡(悲戀舞曲)과『노-마·타르마치』의『麻聞난女子』와『椿姬』가 참조와섯습니다『비연무곡』은 맷번을 밧는지몰라요 그러구『베티·아-만』의『아스팔트』두 퍽조와햇서요!』

記『디-트릭히가 나온후영화에선 어떠세요?』

沈『야잉쓰는조와안해두『디트릭히』와함께 나온『歎息하는天使』도 조흐냐요『모로코』는 한도 조하햇읍니까…』

記『대개 어느나라 영화를 조하하십니까?』

沈『난 불란서영화는 그러케 조하안해요!』 그러다가 기자를 보더니『참 불란서영화는 안빼노시겟지』하며 우스신다

記『그럼 제일조하하는 배우가 누구누구십니까?』

沈『시드니·애온『戀慕의 꽃다발』에서 고만 기막키게조하첫서요 그리구 요새와서는 단연『사알·보아예』『瞬間의幸福』이란니다 어떠케 잘하는지 그냥 꿋까지 갈채쳐군요 굉세 날마다 구경가다시피 햇서요』

記『여자로선 시드니、남자로선『보와예』시군요『가르보』나『쿠-퍼』는 어떠세요』

沈『조쿠말구요 누가실혀할사람잇서요?』

記『영화에서 어떤 장면(場面)을 제일조화하십니까?』

沈『수도원(修道院)장면이제일조와요 그런장면만나오면 고만눈물이 핑도라요』

어떤『러-브·씬』이 조흐냐고 물어보랴든 기자는 이대답에 자못놀내엿다.

記『심선생께서는 자녀(子女)가 영화구경가는데 간섭하시겟서요?』

沈『왜 간섭해요? 자유로 맛겨두지요 제가 비판(批判)해서 구경하겟죠!』

記『조선배우로선 누굴조아하십니까?』

沈『글세요『사랑을차저서』에 나오는 전옥(全玉)이와 약혼『約婚』에나오는 나웅(羅雄)씨가 그중낫더군요……』

물어보고 듯고십흔이야기

寫眞―(右上)"노마·쉐러"의『젊은하이델베르히』(左上)"노마·타르마치"와"길버-트·로-란드"共演의『椿姬』(右下)"베티·아-만"의『아스팔트』(左下)"빌마·방키-"와"로날드·콜만"의『悲戀舞曲』의場景

劇藝術研究會는 "劇研座"로 改稱

演劇專門化의 宣言書도 發表

過去八年間 朝鮮의 演劇文化樹立을위하야 커다란業績을 남겻던 劇藝術研究會는 지난三月二十八日 專門劇團으로 轉向한以後 여러가지로 會의 運行에 對하야 討議한結果 完全히 劇藝術研究會라는 過去의 研究的 演劇文化運動에서 떠나 演劇을 職業的으로 專門化하랴는 計畫을세웟고 따라서 名稱도『劇研座』라고 變更하야 今後 演劇運動에 對한態度를 決定하는同時 다음과가튼 宣言書를發表하엿다

宣言書

(演劇專門化로의길)

劇研은創立된지 벌서八個星霜이다. 그동안에朝鮮演劇界에미친 바 그業績은적지안을수업다。오늘朝鮮演劇이 研究劇의아이지하야興行劇에이르기까지 이만큼의發展이나마圖謀한것은實로 直接間接의 劇研의影響이 아니라 어것은一般論客의否定치못할 儼然한 事實일것이다

이러틋 큰足跡을 烙印하고잇는劇研은 今般에다시 一大飛躍을 꾀한다

그것은 專門劇團으로의 方向이다

여기에說定할必要도업거니와過去劇研은 研究劇을目標하는 素人劇團에不過하엿다 우리演劇現實로보아 아닌게아니라 過去우리劇壇은 良心的藝術을 標榜하는限 一의素人劇團外에 다른것을容納할土壤가 업섯다 그만큼우리의演劇은 藝術的으로나 經濟的으로 未墾地이엇다 그러던것이 어마직해서는 朝鮮의演劇現實도 成長햇다 우리는 素人劇으로 存續하기에는 너무나壯年이다

素人劇에 잇서서의 가장큰缺陷은 우리가 다른職業에 從事하는餘暇에 副次的으로 演劇을 하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항상 그生活에잇서서 演劇은 主가못되고 從이되기쉬웟다.

幼年時節에 잇서서는 從으로도우리는 演劇을가질수잇섯다。그러나 우리는 어미壯年이다。

演劇을 第二次的으로 생각해선 도저히 今日의演劇을우리는감당할수업다。아니 우리의 全死力을 다해서도이것을 자꾸어내갈수업다 그만큼 어事業은 벅차게되엇다。

우리는 우리의全生命을다하야 演劇을가꾸자。우리의神은 演劇이다。너의全生活을 버처라。演劇을職業的으로 혹은 從屬的으로 생각하는者는 그態度를 고처라。

——이것이 演劇專門化의길이다 演劇專門化의 길에잇서서 從來의劇研의精神——文化를 애끼고 참된演劇을 기르자는 劇研의精神은 조금도損傷됨이 업스리라。損傷은커녕演劇專門化의길이래야만 비로소劇研의어張大한精神도 實現될수잇스리라。

演劇의專門化와 演劇의興行化를混同치말라。實로거기에는 天壤의相距가잇느니라。

演劇專門化는 研究劇의아프로의 一步前進은 될지언정 決코後退는될수업다。微微하나마 우리의唯一의矜持는 우리의文化에 그무엇을 플러스하는데잇다。

이번 이專門化의길에서 우리에게 얼마마한『플러스』가 잇슬는지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두고볼일이오、그리고 또 文化를사랑하는 諸賢의 聲援이잇서서 비로소이루어지는일이다 以上

昭和十三年四月 日 劇研座

○

그런데 이번劇研座로 轉向됨에 따라 脫退한會員은 다음과갓다고한다

鄭寅燮 金晉燮 異河潤 曹喜淳 張起悌 李軒求 金珖燮 崔鳳則 咸大勳 毛允淑 鄭玄雄 盧天命 金湺任 李雲谷 外諸氏

도만치면 너무섭섭하가될까보아 아마조각정으로 어사가 비장(悲壯)한『포로마이드』상자에서 걸작을 골나내가지고나왓다

京城아마寫眞俱樂部 第一回展

京城市內의 아마추어寫眞家들이모혀 斯界의 發展을위하야 第一回作品展覽會를열어 한異彩를 띄우게되엇다。主催는 京城아마추어寫眞俱樂部이며 時日은 四月十六、七、八三日間 午前十時부터 午後十時까지 場所는 本町 大澤商會 三層홀이라는데 出品總點數는 優秀한것만골라 約六十餘點가량된다한다

『가방』의聖林賣倒

『불란서』의 영화인(映畵人)으로 배우(俳優) 또는 감독(監督)으로 초빙(招聘)되여간사람이 한둘이아니다 그들은 모두 평창한계약을 해가지고 『헐니』의나타로 전향(轉向)해갓다 그중에『샤알·보와예』와가티 양쪽에다가 계약을해노코 구미(歐米)를 자유로히 단이는것은 특수(特殊)한 예(例)라고할수비게엇다

한편 불란서정부(佛蘭西政府)에서는 이러한 배우(俳優)들을『國家의損失』이라고까지하야 불란서배우의 외국진출(外國進出)의 방지책(防止策)까지 세우고잇다

이번의『랑나』의나타라고 해서『할리웃드』로 가기는하지만 한번가서 그들이 정착한 파리(巴里)와가티 자유로우면서 향락가잇는곳이 아니다。

그러나 철저하게『할리웃드』를 숭하는배우중에는『나는 파리(巴里)에서자라 파리에서 죽고스퍼서 누구 간『장가방』파가튼 일류배우들 대체『아메리카』에는 도주(逃走)도업거니와『빵』(포도주)도업다 나는누가무어타구해도 파리에서 한거름도 어떠 나간다!』고 기염(氣焰)을 토햇다

"漁火"撮影中의一場面

極光映畵社에서 製作中인"漁火"는 方今東海江原道臣津에서撮影中 來二十四五日頃『로-케손』을 마칠모양이라한다 (寫眞은 仁順役의朴香園孃 春三役의尹北洋氏)

"모르나-르"의戲曲"二重結婚"

마르로에서映畵化

"모르나-르"의 희곡(戲曲)『이중결혼』(二重結婚)이 영화화(映畵化)하엿다 감독은『리라-느·포르』로 주연배우(主演俳優)는『결혼놀이데타』『서양특급』(夕陽特急)에서더오터 여름비로 알려진『엘리안·오-엘』과『마-나-로어』로되엿다 그외에 신진여우(新進女優)로 류행의상(流行衣裳)의『모델』로잇든『로마·로-손』이 양『고리실라-로-손』의 비서역(秘書役)을 맛게되엿다 그리고『로어』의 누이역(役)으로는 유명한 스포-츠기자(記者)의 딸『플로렌스·라-어스』양이출연케되엿다

그리고 원작명(原作名)『이중결혼』(二重結婚)을『결혼십자로』(結婚十字路)로『타이틀』을 고첫다

"出發"―씨나리오와 監督을兼하야 淸水宏氏의創作한 今年度上半期 베스트·텐의首位를 占하라는 作品으로 日本女性의 悲劇이라는 異色的要素를 主題로하야 作者가 여기에 現代的인 해명을 試圖하얏다 主要俳優는 田中絹代、上原謙、佐分利信、三宅邦子等 (四月十八日부터 明治座에서上映)

十七日(日曜)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四五分 레코-드音樂
◇同一時 蹴球試合實況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戰』
◇同二時三〇分 春季競馬實況(國語) ―京城新設町競馬場으로부터中繼― 昌德宮御賞典競走
蹴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戰』
◇同六時 幼年童話
◇同六時二五分 講演『社會生活』 李東熙
◇同七時三〇分 唱劇調
◇同八時 歌謠曲 一、비에젓는 情話 二、港口는 슬퍼요 三、不死의薔薇 四、嘆息하는캐리반 五、눈물의 貴布 六、暴風이우는 꿋 七、新婚아까쓰기
◇同八時三〇分 西道소리(平壤) 一、긴아리 二、三、四、 金春紅
◇同九時 라듸오小說『불상한안해』—廬春城作— 朗讀 李俠淑

第一放送
◇午後〇時二〇分 (東)野球
◇同六時 (東)童話
◇同七時三〇分 (東)日曜演藝
◇同八時 (東)俗曲
◇同八時二〇分 (大)드라마
◇同八時五〇分 (東)浪花節

十八日(月曜)

◇正午(東) 時報 (東)和洋合奏 一、奴道中 池之谷靈治作曲 二、幻想曲『거북춤』 島口駒夫作曲 三、意想曲『競馬』 池之谷靈治作曲 四、意想曲『訪花』 櫻井弘也作曲 미구니和洋合奏團 指揮 岡村鄕吉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어린이를都市로보내는父母들에게』 東亞日報 黃信德
◇同四時 뉴-쓰後 蹴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戰』
◇同六時 어린이科學『傳書鳩』 李德象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情報 徐椿
◇同七時 뉴-쓰 銃後美談
◇同七時三〇分 講演 …
◇同八時 京畿立唱 一、遊山歌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四、京畿自由 五、…
◇同八時三〇分 音律 …二、平調會相 三、興民樂

第一放送
◇正午(東)和洋合奏
◇午後六時(東)童話
◇同六時二五分(東)
◇同七時三〇分(東)
◇同八時(東)
◇同八時五〇分(東)浪曲

十九日(火曜)

◇正午(東) 時報 (東)토-키 ―音樂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同六時三〇分 講演『天文이야기』 延專教授 李源喆
◇同七時三〇分 科學데이를마즈면『第五回』

스포-츠

實業野球리-그

—五月七日에開幕—

京城實業野球聯盟主催의 春季野球리-그戰은 來五月七日부터二十日間 京城球場과 龍山球場에서 開催하기로되어 對陣과日程은다음과가치 決定되엿다한다(備考=土曜日은一時半 日曜日은午後一時 平日은 午後四時半第二次戰은 第一次戰終了三十分後에各各開始함)

▲五月七日(土) 遞信對京電(京)
同 殖銀對府廳(同)
▲八日(日) 府廳對殖銀(同)
同 京電對遞信(同)
▲十日(火) 遞信對京電(同)
(以上決勝戰時)
▲十一日(水) 殖銀對府廳(同)
▲十四日(土) 府廳對鐵道(同)
同 殖銀對遞信(同)
▲十五日(日) 殖銀對鐵道(同)
同 鐵道對府廳(同)
▲十七日(火) 府廳對鐵道(同)
▲十八日(水) 遞信對殖銀(同)
(以上決勝戰時)
▲廿一日(土) 殖銀對鐵道(龍)
同 府廳對京電(同)
▲廿二日(日) 京電對府廳(同)
同 …
▲廿四日(火) 殖銀對鐵道(京)
(以上決勝戰時)
▲廿五日(水) 府廳對京電(同)
▲廿八日(土) 府廳對遞信(同)
同 鐵道對京電(同)
▲廿九日(日) 京電對鐵道(同)
同 遞信對府廳(同)
▲卅一日(火) 府廳對遞信(同)
(以上決勝戰時)
▲六月一日(水) 鐵道對京電(同)
▲四日(土) 殖銀對京電(同)
▲五日(日) 遞信對鐵道(同)
同 京電對殖銀(同)
▲七日(火) 殖銀對京城(同)
(以上決勝戰時)
▲八日(水) 遞信對鐵道(同)
(入場式은 五月七日午後一時)

陸上練習會

沖田、村社兩氏招聘 五月八日은記錄會

올림픽東京大會를 目標로하야 朝鮮陸上競技陣容의 强化策으로 全朝鮮陸上競技協會에서는 올림픽大會의 日本軍『헤드·코-치』沖田芳夫氏와밋 長距離界의 雄 村社講平兩氏를 招聘하기로決定되엿다함은 旣報한바이어니와 兩氏는 來五月五日午後一時三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한後 六日(午後四時부터六時까지)七日(午後二時부터四時까지)의 兩日間京城運動場에서 練習會를 열기로 되엿는데 以上兩氏外에도 在京올림픽 選手의 木村一夫、中村淸、永車孝道의 三選手를비롯하야 朝鮮短距離王金裕澤、長距離界의 至寶 柳長春、鹽田、孫田、鄭寶、光田等의 一流選手가 이練習會에 指導役을 할터이라는바 參加者는 男女를 不問하고 五月三日까지 總督府 社會教育課內 同協會로 申込하기바란다고한다 그리고 同練習會를 마친後에는 繼續하야 八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記錄會를 열기로 되엿스며 兩氏도 參加하야 全種目에亘한記錄을 …

李興淳、李應鎭、鄭日燮、胡在辰、金仁國、宋永勳、鄭麟澤、孫榮昱(以上十五人)

延專自轉車部新設

朝鮮에잇서서의自轉車競技가貧弱狀態를 아직것 버서나지못하고잇는 이때에 更生의第一步를 내드딘 先驅部隊가잇스니 이는昨年부터 自轉車競技界에 努力하야오든延禧專門學校自轉車愛乘者사이에 熱力하야오든結果 學校當局者의 後援下에 延專自轉車競技部가 新設케되엿는데 陣容가운데에는 培材高普時代에 勇名을 휘날리든李潤白君이 석겨잇스며『멤버-』는 다음과갓다

▲部長=[illegible]寬博士▲監督=申滿白、崔漢永▲主將=徐廷萬▲選手=李潤白、劉承振、鄭奎燮、李成根

朝鮮拳鬪俱 道場完成

新入部員도增募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illegible]化町二〇番地에 새로히道場을建設中이든바 요즈음完成되엿스므로四月一日부터 新道場에서 練習을하고잇는데 晝間部는 午後四時 夜間部는 午後七時부터 同時에 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新春을마지하야 新入部員도 大大的으로 募集하기로되엿다는바 入部希望者는 直接同俱樂部로 問議하야주기를바란다한다

總督府卓球部任員

總督府卓球部에서는 이번에새로히 昌成町分室(前遞信吏員養成所跡)에다 卓球場을 設置하고 다음과가튼 幹部를 選定하엿다고한다

▲部長=北村輝雄 ▲副部長=金昌鈞▲同牧山正彥 ▲監督=早瀨丑一 ▲마네저=朴在徹▲幹部=李東德 鄭錫烈 海津正濟

滿洲電業野球팀來征

京城實業野球聯盟에서는 滿洲電業野球團을 招聘하야 左記日程아래 京城球場에서 五回戰을 行하기로되엿다

▲四月廿九日(祭)午後一時對京電
▲同 午後四時對殖銀
▲四月三十日(土)午後二時對遞信
▲五月一日(日)午後一時對府廳
▲同 午後四時對鐵道

在平壤記者團 野球팀結成

【平南支社發】在平壤記者團에서는 十五日午後四時부터 新公會堂食堂에서 記者團野球팀의 結成式을 行햇는데『팀』編成은 各社支局長을 顧問으로 推戴하여 一任키로하고 五時頃散會햇다 아프로 記者團野球軍에 試合을 申請하는팀과 對戰키로되엿는데 記者團에서는『스포-츠』野球를 通해서도 크게활약하게되엿다

東京大會前에 萬國博閱會를交涉

올림픽東京大會 組織委員會는 東京大會와 萬國博覽會의 會期問題와 組織委員會를 法人化로하기爲하야 寄附行爲草案의 審議를行코저 十一日午前十時 組織委員會議室에서 열고 東京大會와 萬國博覽會會期問題에『카이로』總會出席의 代表部로부터『萬國博覽會는 昭和十五年八月廿四日까지에 閉會하도록 要請한다』는 公電에 基하야 永井事務總長의 歸國을 기다려 萬國博覽會에 正式交涉할것을 協議하고 正午에 散會하엿다한다

紐育서嘉納氏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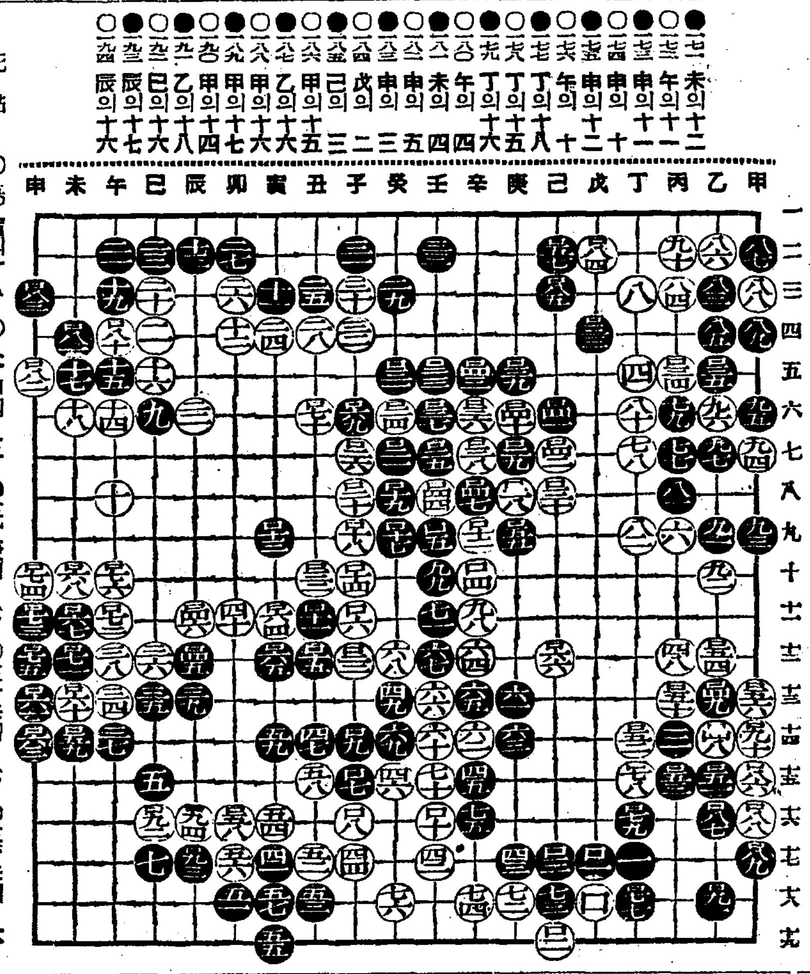
【紐育十五日發同盟】宿舍『뽀라사-호텔』에서 한밤을 새인 日本IOC代表嘉納治五郞氏는 十五日當地關係者와 懇談할 豫定이든바 午後四時十五分부터『코린비아』放送局에서 東京大會에關하야 大體로 다음과가튼 要旨로 全米에放送하기로되엿다 放送은 먼저 東京大會는 東洋과西洋과의 友好關係를 더욱促進하는것으로서 其準備狀況에對하야 詳細說明하고 東京大會는 質實剛健을主旨로하야 올림픽精神에서 바린이업도록 努力할터이라고强調하엿다 同氏는 十七日『사톨』에向하야 水川丸으로 歸國할터이라한다

國手爭霸譜 (12)

×××本社獨占×××

白 任佑植
黑 金秉浩
(四目半込出)

白의機敏한 先手의活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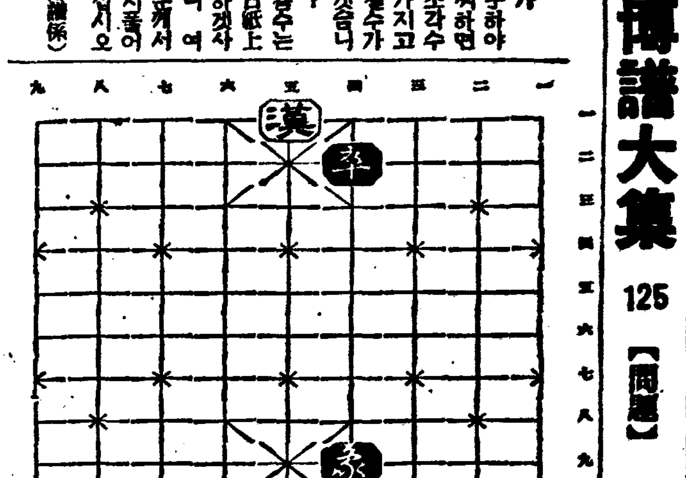
死點… 劫點… 粘…

局勢는 어미細碁戰어 展開되야 白이 자조有利한 자리를占하지마는 中盤以來 白의北의悲運을 救出할수업다 그러한細碁戰의 得利로는 敗勢形勢가 너무기우러진 關係로 그러나 黑이 局勢의有利함에溺足하야 너무保守的에 흐르는까닭인지 元來 細碁戰에 注意가不足한 까닭인지 이는 알수업거니와 어떠튼 手順마다 損失을 當하고잇스니 그와가티이것이 累積하면 지금까지의 優勢를 或은 抹殺해버릴는지도 알수업다. 그러고 黑一七一 末의一 二는 午의一一로 한번더 白戶中으로 突進하는것도 조치마는 그리두면 白戶二戶를 더만히주려는 대신에 先手를 빼기게되니 白戶二戶를 더만히 주려는것보다 先手를 保障하는것이 利益인것을 熟考한 조흔打點이오 白一七二 午의十一 黑一七三 甲의二 白一七四 申의二 白一七六 午의一〇等은 모다 通例의酬應어니와 黑一七五 申의一 黑一七七 丁의一八은 白이 丙의 一八로飛走하야 爭을 新行할수업는것은 下邊中央의 白馬關係로 決定된 事實인데 그計算에 언제나 그것은 黑이 하게된자리이니 黑一七七을 丁의一五로 두어 白戊의一四 黑戊의一 五로 酬應하얏슬것이면 그리고 白의 利가되엿슬것이다 그리고 白一七八 丁의一五、黑一七九 丁의一六과 白一八〇 午의四、黑一八一 未의四、白一八二 申의五、黑一八三 申의三等은 모다 通例의酬應이어니와 이제 白은 細碁戰에잇서서 先手의活用이 자못機敏한것이잇스니 비록局勢는 기우러젓다할지라도 最後의勝負는 速斷할수업다 白一八四 戌의二、黑一八五 己의三、白一八六 黑一八七 乙의一六、白一八八 甲의一九、甲의一七、白一九〇 甲의一八等은 모다 先手를 잘活用한 細碁工作의 正當한酬應이오 白一九二 巳의一六은 먼저 辰의一七에두어 黑辰의一八、白巳의一六、黑午의一六、白辰의一六、黑午의一七로 酬應하면 白은 다시 先手를 빼앗길수잇고 또 四、五戶의利害는 先手를 保障할수잇스니 이제 四、五戶를 喰하야 先手를 빼앗기는것은 손가는것이라고 생각하거니와 그러나 黑이 마친내 先手를 뺏지못하고 말는지도 알수업스니 結局 白은 四、五戶의利害가 지게될것이다 그의詳細는 次回에서 말하겟다

◀楚가이기는수▶

楚가 先手하야 어찌하면 이조각수를가지고 이길수가 잇겟습니까? 解答은 明日紙上에 發表하겟사오니 여러분께서 먼저풀어 보시시오 (博譜係)

◇博譜大集 125 【問題】



長篇小說

濁流 【179】

蔡萬植 作
鄭玄雄 畫

老童『戀愛日記』(六)

(승재는 초봉이에게 대한 첫사랑의 기억을 안저히 엇서바리지는 못한 저다 물론 그것은 유망도업고 매력도 아닌 한낫 가슴에 적혀저잇는 영상(映像)일 따름이기는하다

허지만 소위 첫사랑의 제취라던 마치 어려서 치른 마마자국가티 좋처럼 가시며 안는 흔적이다.

초봉이를만 아니라 가령 꿈과 마음은 당장 이룰이둘 달구어진 새정렬의 도가니 속에 서 다가치 녹고잇으면서도 일변 첫사랑의 자취에서는 여연한 애 회포가 저혼올로 한가로운 초봉이를하는수가업지안타。

결국 초 가장사리에 유령이나와서 배회하듯『사랑의유령』이저 별수 업는것이다。

그러나、어쨋던 승재는 아직도 망부(亡父)아닌 그 사랑의 유령을 가끔 맛나『함레트』의 제자노릇을 일수 하군햇섯다。

그럴뿐 더러、그는 제 마음을 미루어、초봉이도 응당 그러하려니 짐작하고잇다。

이러틋 제자신이 저편을 와

젼히 엿지못하고잇고 저편에서도 그러한줄로 역어고 잇기때문에、만약 초봉이와 한 울안에서 조석상대의 밀접한 생활을 하고보면、정이 서루 다시 얼켜、마침내 가장 불쾌한 결과를 보고래야 말게 되지나 안을가、이것을 승재는 저어하던것이다。

승재는 전에도 시방도 그리고 아프로도 초봉이에게 대한 동정은 일치안을 생각이다。

그러나 어미 못 남자의 손에 처어、정조적으로 순결성을 일허바린 여자、초봉이를 것다 거 결혼의 상대로 삼을 의사는 꿈에도 업슬 소리다。하물며 계봉이를 두어두고라…。

사내 치노코 그만한 결벽이야 누구는 업슬고 마는、승재는 가뜩이나 그게 더한테다가 일면 소심하거 또한 다시업서 일울려면 시방 해변까의 놀랜 조개처럼 다뿍 조갑저를 옴으리는 양이다。

계봉이는 종시 오락가락 서성거리는 승재를 잡어다가 제자리에 안치노코 엇줍어 어여기를 시작한다。

『우리 언니가 서울로 올라오다가 중로에서 바제호를 맛나가지구…』

서두는 이러케 거기서 부터 시초를 낸다。

초봉이는 제가 치르던 전후풍파를 그동안 여러차례 두고 동생한테 설파를 햇섯고 그래서 계봉이는 그것을 다 그대루 승재에게다 되옴겨 들려주는 터이다。

그러고 작년 가을부터는 쭉 바로『빼스큐』할라가다 혓세

(루)의 그 말을 보 (?)… 일변햇다。

어여기를 듯는 동안 승재의 거동은 요란스럿다。얼굴이 붉엇다 푸러락 햇다가 절절히 잠꼬를 벌심벌심 햇다가 마루저동을 햇다가 주먹을 부루쥐고 꺼지게 한숨을 내쉬엇다가…。

그리하다가 마침내 초봉이가 헐수할수 업서 목숨을 내던지려서는 그만 참지못해

『비러-먹을 놈의!…』

투먹은 소리로 벼락 질르더니 금서로 긁다란 눈물방울이 똑똑 떠러져 내렷다。

초봉이의 그러틋 피절한 애정에 대한 감격과 아울러 형보에게 대한 의분과 그두가지 상처된 감정의 격동을 어찌하지 못햇던것이다。

『그런 놈을 그냥 두구보답!』

마구 죽여 업새더지…。

『승재는 흘르다가 남은 눈물을 주먹으로 씻스면서 두런거린다。

계봉이는 가치서 홍분하거나 다도 드는하며 떠몌성 엿서 보이는양、미소를 드리내고 바라 보다가 고개를 가루 흔든다。

『그래두 유범전서가 다 보호를 해 주잔우? 생명을 보호 해주구… 오 재산두 보호 해주지… 수형법(手形法)、…? 이러더나 그러게 엿서서、고리대금을 해먹무루 마련이 … 미 찰하한 사인이겟요 …… 절하 어뎐이겟서!』

전 제눈으로 보아온 터이라、장형보의 인물이며 그와 초봉이와의 부자연한 관계며 승히에게 대한 초봉이의 지극한 애정이며 또 요지음으로 들어서는 바짝 더 절망이 되어 사는 불안 정상에서 헤매는 그의 심정 그의 건강、이런것은 차라리 초봉이 자신이 어애기할 수잇는 이상으로 묘령잇게、그러나 세밀하게 잘 설명을 할수가 잇섯다.

한시간이나 어애기는 걸엇다 그리고 맨 마주막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두 눈치가、승히는 내게다가 맥기구서 자기는 죽어바릴 생각인가 봐!… 그것두 피정은 자기가 편안하자는게 어니구 장형보 손에서 송희를 빼야 주자는 요량이겟지만…』

여러케모마친소리로끗을매첫다。

예 최후의 말…자기가 편안하자는게 아니요、형보의 손에서 송희를…이라고한것은 설상 너무 과한 해석이라 하겟다。

아무런 그러나―오히려 그것때문에 더욱―승재는 크나 큰 감격과 초봉을 뱃지 안을 못햇다。견우군 미견양(見牛 未見